

아제르바이잔

정보수정일자: 2012. 08. 23

작성처: 바쿠 무역관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재,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해 엄격하게 금지되며 위반 시에는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kotra

<http://www.kotra.or.kr>

<http://www.globalwindow.org>

◀ 목 차 ▶

I. 국가일반

- 국가개요 / 1
- 정치사회동향 / 2
- 한국과의 주요이슈 / 4

II. 경제

- 경제동향 및 전망 / 7
- 주요산업동향 / 9
-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 12

III. 무역

- 수출입 동향 / 13
-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 15
- 수입규제제도 / 17
- 대한수입규제동향 / 18
- 관세제도 / 19
- 주요인증제도 / 20
- 지식재산권 / 21
- 통관운송 / 23

IV. 투자

1. 투자환경 및 동향

- 투자환경 / 25
- 외국기업 투자동향 / 28
- 우리기업 투자동향 / 29

2. 외국인투자 유치제도

- 주요 투자법 내용 / 30
- 진출형태별 절차 / 32
- 투자입지여건 / 36

3. 사업관리

- 노무관리 / 39
- 조세제도 / 41
-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 43

V. Business 참고정보

- 시장특성 / 45
- 물가정보 / 46
- 바이어 발굴 / 47
- 상관습 및 거래 시 유의사항 / 49
- 무역, 투자 진출 시 애로사항 / 50
- 진출 성공, 실패 사례 / 51
- 이주정착 가이드 / 52
- 출장가이드 / 53
- 주요 전시회 개최일정 / 58
- 유관기관 웹사이트 / 59

1. 국가일반

1. 국가개요

가. 일반사항

위치	카스피해 연안 카프카즈 지역
면적	86,6천 km ² (한반도의 2/5)
기후	아열대(수도권 지역), 건조 온대초원 기후 등 다양한 기후대 분포
인구	910만 명 ('11)
수도	Baku (211만 명) ('11)
민족	아제르바이잔인(90.6%), 레즈기인(2.2%), 러시아인(1.8%), 아르메니아인(1.5%), 기타 20여개 소수민족(3.9%)
인접 국가	- 남쪽: 이란 (765km), 터키 (15km), 북쪽: 러시아 (390km) - 북서쪽: 조지아 (480km), 서쪽: 아르메니아 (1007km)
언어	아제르바이잔어 (공용어), 레즈기어, 러시아어(제2외국어)
종교	이슬람교(93.4%), 러시아 정교(2.5%), 아르메니아 정교(2.3%), 기타(1.8%)
시차	서울시간보다 4시간 느림. (섬머타임 적용 시: 5시간 느림.)
화폐 단위, 환율	Manat(마나트) 1달러=0.785마나트(2012.8.22기준)
독립일	1991. 10. 18.
정치체제	대통령중심제
국가원수	Ilham Aliyev 대통령
의회	단원제 (125석)
주요정당	신아제르바이잔당 (NAP), 국민독립당 (ANIP), PPFA, 민주당 (DPA) 등 15개이상의 정당
국제기구 가입	ADB, CIS, EBRD, IAEA, IDB, IMF, MIGA, UN 등

자료: 아제르바이잔 국가통계위원회 / EIU Country Report 등

나. 경제현황(2011)

명목GDP	577억 달러
1인당GDP	약 6,349달러
실질GDP 증가율	0.1%
소비자물가상승률	약 6.6%
외채	약 40억 달러
교역규모	수출: 265억 달러, 수입: 97억 달러
주요 교역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유가스(94.4%), 식료품(2.7%), 금속제품(0.9%), 플라스틱(0.5%), 기타(1.5%) ○ 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장비(32.9%), 식료품(15.1%), 금속제품(14.5%), 운송수단(18.3%), 기타(19.2%)

자료: EIU Country Report (2012. 7) 및 아제르바이잔 국가통계위원회

2. 정치 사회 동향

가. 정치 역사

- 1989.9 아제르바이잔 최고회의, 주권 선언
- 1991.9 무탈리보프 대통령 당선
- 1991.10 아제르바이잔 공화국 탄생
- 최고회의, 국가독립에 관한 법 통과 (독립기념일: 10.18)
- 1992.3 무탈리보프 대통령 실각
- 나고르노-카라바흐 분쟁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응했다는 이유로 축출
- 1992.6 야당인 인민전선의 엘치베이 대통령 당선
- 1993.6 구세이노프 대령이 주도한 쿠데타로 엘치베이 대통령 사임
- 헤이다르 알리에프 최고회의 의장이 대통령 권한대행
- 1993.10 대통령 선거 실시
- 헤이다르 알리에프 대통령 집권(득표율: 99%)
- 1995.11 독립 후 최초로 의회 총선 실시
- 1995.11 헌법 채택
- 2003.10 대통령 선거 실시
- 헤이다르 알리에프 대통령 아들인 일함 알리에프 당선 (득표율: 76.8%)
- 2005.11 총선 실시
- 집권당인 신아제르바이잔당 승리(125석중 63석 확보)
- 2008.10 대통령 선거 실시
- 일함 알리에프 재선
- 2009.3 대통령 3선 금지 조항을 폐지하는 헌법 개정안 국민투표로 통과
- 2010.11 총선 실시
- 신아제르바이잔당(YAP) 72석, 친여 무소속41석, 군소정당 12석 차지

나. 정치 체제

- 정체: 대통령 중심제
- 정부 주요 인사
 - 대통령 : Ilham Aliyev
 - 총리 : Artur Rasizade
 - 부총리(4인) : Yagub Eyyubov, Elchin Afandiyev, Ali Hasanov, Abid Sharifov
- 주요 장관
 - 비상사태장관 : Kammalladin Heydarov
 - 농업장관 : Issmat Abbasov
 - 외교장관 : Elmar Mammadyarov
 - 국방장관 : Safar Abiyev
 - 통신정보기술장 : Ali Abbasov
 - 경제개발장관 : Shahin Mustafayev
 - 재무장관 : Samir Sharifov
 - 산업에너지장관 : Natiq Aliyev

- 의회 : 단원제(National Assembly)
- 의석 : 125석(지역구)
- 국회의장 : 아사도프(Ogtay Asadov)
- 여당 : 신아제르바이잔당
- 야당 : Motherland Party, Umid Party, Civil Unity Party 등

다. 행정권(최신 이슈)

- 2003.10 취임한 일함 알리에프 대통령은 취임 후 외무장관과 통신장관을 40대로 교체하는 등 국내정세 안정을 기반으로 경제발전을 추진
- 그러나 2005.11월 총선을 앞두고 정국이 혼란한 가운데 반대세력을 쿠데타 기도 혐의로 체포하는 등 권위주의 통치방식을 노정
- 2005.11.6 실시된 의회 총선에서 집권여당인 ‘신아제르바이잔’이 전체의석의 과반수가 넘는 63석을 확보함으로써 알리에프 대통령이 안정적으로 정책을 펴 나갈 수 있는 기반 마련
- 2008.10 대선에서도 압도적인 지지(80% 이상)로 재선에 성공하였으며, 2009.10월에는 3선을 금지하는 헌법 조항을 국민투표를 통해 개정함으로써 장기집권을 위한 토대를 마련
- 2010.11 실시된 총선에서 집권여당인 신아제르바이잔당(YAP) 72석, 친여 무소속이 41석을 차지함으로써 안정 기반 마련
- 일함 알리에프 대통령은 2004년 기준 880불에 불과한 1인당 GDP를 2011년 6,349달러로 증대시키는 한편 빈곤문제 해결, 사회복지 증대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심각한 소득불균형과 부정부패 등 사회불만 요인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언론통제 등으로 국민들의 불만은 거의 표출되지 않고 있음
- 2013년 실시 예정인 대통령선거에서도 일함 알리에프 대통령이 당선될 전망

라. 향후 정치사회 전망

- 현재 아제르바이잔 국내정세는 안정되어 있으나 EU 및 미국 등으로부터 인권 및 언론자유 탄압에 대한 압력을 받고 있음
- 야당과 이슬람 세력이 주도하는 소규모 반정부 소요사태도 간헐적으로 발생
-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지지도, 언론통제, 그리고 나고르노-카라바흐 해결을 위해 국가 역량을 집중시켜야 한다는 공감대가 국민들 사이에 형성되어 있어 이러한 반정부 시위가 현 정권에 대한 위협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낮으나, 만연된 부정부패는 장기적으로 정국 불안요소가 될 수 있음
- 석유 및 가스 산업 발전에 따른 오일 머니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비에너지분야 발전(산업 다변화)과 국민 생활 수준 향상(빈곤층 타파) 등의 성공 여부가 장기적인 정치사회 안정에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

3. 한국과의 주요 이슈

외교 수립 및 대사관 개설

연도	주요 사항
1992.3.23	외교관계 수립
2006.03	주 아제르바이잔 한국대사관(1인공관) 개설(류광철 대사 대리)
2006.12	류광철 주아제르바이잔 특명전권대사 임명
2007.03	주한아제르바이잔대사관 개설(Rovshan Jamshidov 대사)
2009.12	제2대 이지하 대사 부임
2012.06	한-아제르바이잔 수교 20주년

자료: 외교통상부

□ 주요인사 교류

- '05. 11: 맘마디아로프 외교장관 방한
- '06. 5: 노무현 대통령 아제르바이잔 공식방문
- '06. 6: 김용덕 건설교통부 차관 아제르바이잔 방문
- '06. 8: 이원걸 산업자원부 차관 아제르바이잔 방문
- '06. 10: 알리에프 산업에너지부 장관 방한
- '06. 11: 맘마도프 교통부 장관 방한
- '07. 4: 일함 알리에프 대통령 방한(6개 부처 장관 수행)
- '07. 5: 이춘희 건설교통부 차관 아제르바이잔 방문
- '07. 6: 헤이다로프 비상사태부 장관 방한
- '07. 8: 이재훈 산업자원부 차관 아제르바이잔 방문
- '07. 9: 아사도프 국회의장 방한
- '07. 9: 이원걸 한국전력공사 사장 아제르바이잔 방문
- '08. 4: 이재훈 지식경제부 차관 아제르바이잔 방문
- '08. 5: 한승수 국무총리 아제르바이잔 방문
- '09. 5: 바기로프 환경천연자원부장관 방한
- '10. 3: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아제르바이잔 방문
- '10. 4: 이상득 국회의원 아제르바이잔 방문
- '10. 12: 엘마르 맘마디아로프 외무부 장관 방한
- '11. 3: 국토해양위 송광호 위원장 등 국회의원 5명 아제르바이잔 방문
- '11. 4: 헤이다로프 비상사태부 장관 방한
- '11. 6: 박연수 소방방재청장 아제르바이잔 방문
- '11. 6: 타기 타기에프 대통령실 수석고문 방한
- '12. 1: 박희태 국회의장 등 방문
- '12. 4: 일함 알리에프 대통령 방한 (서울 핵 안보 정상회의)

주요 협정·약정 체결현황

체결 협정	체결 약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6. 5월: 문화협정 ○ 2006.5월: 항공협정 ○ 2007.4월: 투자보장협정 ○ 2008.5월: 이종과세방지협정, 외교관·관용여권비자면제협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6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 아제르바이잔 방문 ○ 2007년 4월 일함 알리에프 대통령 방한 등을 계기로 경제 분야별 약 30여 개 협력 약정 체결

□ 아제르바이잔 거주 한인

아제르바이잔 거주 한인은 약 220명(2012. 7월 기준)이며, 주로 한국어 교사, 태권도 사범, 상사원(삼성, SK C&C, 희림, 울트라건설 등), 유학생, 선교사, 정부파견 공무원 등이다. 이외에 약 20여명의 고려인 가족이 거주하고 있다. 2005년 1월에 한인회가 창립되었다.

II. 경제

1. 경제동향 및 전망

가. 경제개관

1991년 구소련으로부터의 독립 이후, 1995년까지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을 둘러싼 아르메니아와의 분쟁, 정권교체 등으로 극심한 경제침체를 겪었으나, 1996년 이래 정치안정을 배경으로 효과적인 거시경제 정책을 추진하면서 높은 경제회복세를 보여왔다.

아제르바이잔 경제의 핵심인 석유·가스 부문 수출 급증에 따라 2006~2010년 동안 연평균 경제 성장률 16.4%를 달성하였으나, 2011년에는 0.1% 성장에 그쳤다. 2012~2015년 동안은 연평균 경제성장률 3~5%대의 성장이 전망된다.

경제성장은 주로 석유·가스 등의 에너지 자원과 이를 통한 자본 축적 등으로 이루어진다.

2011년 수출액 USD 265억 달러 중 94.4%를 석유·가스 관련 제품이 차지(2005년 54억 달러 → 2011년 250억 달러)하는 등 경제의 석유·가스 편중이 심각하다.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석유 가스 생산이 향후 10년 내에 정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석유 및 가스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편중된 산업 구조에서 탈피하기 위하여 최근 들어 국가석유기금(SOFAZ)을 활용하여 사회보장성 지출을 확대하고 인프라 개발사업(교통, 통신, 농업, 관광 등)을 추진 중이다.

나. 경제정책

□ 경제정책 추진 방향

- 에너지 산업, 인프라 등 기간산업 발전
 - 유전 개발은 물론 석유관련 산업 발전을 도모하면서 석유수출대금으로 도로·통신·발전소 등 인프라 확충에 주력
- 산업구조 다변화
 - 석유·가스에만 의존하는 산업구조에서 탈피하여 제조·건설·IT분야 등으로 산업구조 다변화를 추진하면서, 비에너지 분야 발전에 필요한 외국자본 유치에 노력
 - 목화·포도·철갑상어 등 농수산물 가공업 발전과 수출 확대, 기후·지리적 이점을 고려한 관광산업 개발 등에도 노력
 - 특히 제2의 도시 '간자'를 전자산업 단지로 재가동하고, 시설 노후화로 가동률이 10%대에 불과한 '숨가이트' 석유화학단지를 부활시키기 위한 투자 유치에도 노력

□ 재정정책

- 재정적자 추이
 - 1990년대 초반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와 아르메니아와의 전쟁으로 인해 재정적자가 GDP의 15.3%까지 증가하였으나 1995년부터 실시된 안정화 정책으로 재정적자가 1997년에 이르러 GDP의 1.6% 수준으로 감소
 - 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로 유가가 1/3로 하락하면서 적자가 다시 증가하여 1998년 GDP의 3.9%, 1999년 GDP의 4.7%까지 증가

- 이후 유가의 상승과 함께 석유수출의 증가로 적자는 다시 감소, 2011년에는 GDP의 1.7%에 그침
- 구조적인 문제
- 재정수입의 약 50~60%를 SOFAZ(석유기금)으로부터의 차입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유가 하락 등으로 SOFAZ로부터의 차입 부족이 발생 시 재정 운용에 부담으로 작용
- 최근의 정부지출 증대
- 최근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인프라 투자 등을 위해 정부지출 규모를 확장
- '11년에도 재정지출 확대 결과 GDP 1.7% 규모의 재정적자 발생(SOFAZ 기금 차입 제외 시, GDP의 21.6% 재정 적자)하였으며, 이러한 재정지출 증대는 인플레이션 압력으로도 작용

□ 통화정책

- 인플레이션
- 아르메니아와의 전쟁과 불안정한 정국으로 1994년 인플레이션이 1.664%로 치솟기도 하였으나, 1995년 통화안정정책 실시 이후 인플레이션을 지속 하락
- 단, '05년 이후 석유수출의 증가에 따른 급격한 외화유입, 정부지출 증가, 민간소비 증가 등에 따라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 작용
- 중앙은행의 긴축정책으로 '08년 20.8%이던 인플레이션이 '09년 1.5%, '10년 5.7% '11년 6.6%수준으로 하락
- 통화정책
- '06년 통화개혁을 거쳐, '07.1월부터 전면적인 신화폐체제(구 마나트 5,000 = 신 마나트 1)를 도입
- 마나트화는 대 달러화 평가절상 압력에 계속 직면
- State Oil Fund of the Republic of Azerbaijan(SOFAZ)
-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마나트화에 대한 절상압력을 줄이기 위해 '99.12월 State Oil Fund of the Republic of Azerbaijan(SOFAZ)을 설립
- 동 기금의 목적은 석유수출로 벌어들인 외화수익을 통화체제로부터 분리하여 국내통화를 안정시키는 것으로 기금에서 얻어지는 수익은 사회간접 자본이나 비석유산업에 투자

다. 경제운영상의 과제

- 석유·가스 분야에의 과도한 의존 및 비석유산업의 낮은 생산성
- 전환경제(Transition Economy) 문제점의 미해결
- 구소련 구성공화국들이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겪고 있는 각종 문제점 잔존
- ※ 전환경제의 핵심은 자유화(Liberalization). 사유화(Privatization). 법의 지배(Rule of Law)이나, 아제르바이잔의 경우 여타 CIS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자유화와 사유화 과정에서 관료들의 부정부패, 반시장적 관행 및 미약한 사법제도 등과 구소련시절의 낮은 생산설비로 인한 생산성 저하의 문제점이 미해결 상태로 지속

2. 주요 산업동향

가. 산업개관

- 석유·가스 산업은 GDP의 45~50%, 수출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산업
- 석유·가스산업은 '05년 BTC 파이프라인 개통 및 BP 등 국제석유메이저의 투자증가에 따라 원유 생산량이 '05년 22.2백 만톤, '06년 32.3백 만톤, '07년 42.6백 만톤, '08년 4.5백 만톤, '09년 50.4백 만톤, '10년 50.8백 만톤으로 지속 증가
- 석유·가스 산업 및 관련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 부문은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나, 비 석유·가스 분야 산업은 투자부진 등으로 크게 낙후
- 농업부문은 가장 큰 고용창출 부문이자 두 번째로 큰 수출 산업('10년 1.9억 달러)이나 석유수출로 인한 대규모 달러 유입에 기인하는 마나트화 평가절상으로 수입농산물이 유입되어 부진
- 휴대전화 등 통신부문은 빠른 성장세 시현('11년 휴대폰 가입자는 9.7백만 명으로 전년대비 17% 성장하였으며, '05년 대비 약 5배 성장)
- 건설 부문은 건설시장규모가 '05년 19억 달러에서 '11년 57억 달러 규모로 확대되는 등 빠르게 성장

나. 석유·가스 산업

□ 석유·가스 개발 역사

- 미국보다 11년 앞선 1848년 바쿠지역에서 세계 최초로 시추작업을 했으며, 19세기 후반 세계 석유생산의 중심으로 부상, 세계 석유공급의 절반을 담당
- Shell, Rothschild나 Nobel형제 등 외국 석유회사와 투자자들이 몰려들었으나 1917년 제정 러시아의 몰락과 소련의 출범으로 74년간 외국인 투자 차단
- 제2차 세계대전시 소련군의 원유 수요 70%를 담당했던 바쿠는 히틀러의 첫 번째 공격 목표로 히틀러는 기필코 바쿠를 점령하라는 명령을 내렸으나 독일군이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패함으로써 바쿠 유전지대는 계속 소련의 지배하에 놓임
- 1950년대 러시아의 서시베리아 유전이 발견되기 이전까지는 소련 최대의 유전지역으로 소련의 에너지 공급원 역할을 수행
- 1991년 독립 이후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다국적 석유회사들의 투자를 유치해 카스피해 석유·가스 개발을 추진
- 1994.9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BP(영)·Statoil(노)·ExxonMobil(미) 및 SOCAR(아제르바이잔) 등이 설립한 합작벤처 AIOC와 Azeri-Chirag-Gunashli(ACG) 유전지대에 대해 CIS국가 중 최초의 생산물분배협정(PSA, production sharing agreement)을 체결. 동 계약을 통하여 아제르바이잔 석유산업은 비약적으로 발전
- 이후 '10년 기준,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15개국 기업들과 27개의 생산물분배협정을 체결, 세계의 주요 석유 메이저들이 아제르바이잔에 진출

□ 석유.가스 자원 보유량

- 아제르바이잔의 석유 확인 매장량('10.1월 기준)은 70억 배럴로 세계매장량의 0.6%, 천연가스는 1조5,000억㎥로 세계매장량의 1.6%
- 최근 유망 광구 탐사가 지속되고 있으며, 아제르바이잔 정부 주장에 따르면 석유 확인 매장량은 140억 배럴, 천연가스 확인 매장량은 2.8조㎥에 달함
- 한편, 석유 추정 매장량은 390억 배럴, 가스 추정매장량은 1.85조㎥로 각각 카스피 해 총 매장량의 19.1%, 11.7%에 해당

□ 석유.가스 생산현황

- 석유 생산은 독립 이후 감소 추세에 있다가 Azeri-Chirag-Gunashli(ACG) 유전 개발을 계기로 1998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2004년 이후에는 새로운 해저 유전 개발과 기존 유전 생산시설의 현대화로 석유 생산이 더욱 증가
 - * 석유 생산 추이(백만 톤) : ('04) 15.5 → ('05) 22.2 → ('06) 32.3 → ('07) 42.6 → ('08) 44.5 → ('09) 50.4 → ('10) 50.8
- 천연가스는 2009년 16.3억 입방미터 2010 16.7입방미터 생산

□ 석유.가스 주요 개발 프로젝트

- 아제리-쉬라그-구나쉬리(Azeri-Chirag-Gunashli: ACG) 프로젝트
 - 확인 매장량이 54억배럴로 아제르바이잔 전체 매장량의 70%를 차지
 - 1994.9 英 BP社를 사업운영자로 한 국제컨소시엄 Azerbaijan International Operating Company(AIOC)와 아제르바이잔의 State Oil Company of the Azerbaijan Republic(SOCAR) 정부간 계약체결로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 AIOC 컨소시엄에는 BP(영국) 37.4%, CHEVRON(미국) 11.3%, INPEX(일본) 11%, SOCAR(아제르바이잔) 10%, STATOIL(노르웨이) 8.6%, ExxonMoBIL(미국) 8%, TPAO(터키) 6.7%, ITOCHU(일본) 4.3%, HESS CORP.(미국) 2.7%의 지분을 가지고 참여 중
 - 1997년부터 3단계로 나누어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Chirag-1 유전은 1단계, Azeri 유전은 1.2단계, Gunashli 부분은 3단계에서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음(2008년부터 전 유전에서 생산 중)
- 샤푸라즈(Shah-Deniz) 프로젝트
 - 샤푸라즈 가스전은 매장량 1조㎥에 달하는 세계 유수의 대형 가스전 중의 하나임
 - 1996.6 PSA 체결 이후, Shah-Deniz 1단계 개발이 2006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연간 80억㎥를 생산하고 있으며, 동 가스전 개발로 인하여 아제르바이잔은 가스 수입국에서 가스 수출국으로 전환되었음. 동 가스전 개발 및 운영에 BP(운영사) 25.5%, Statoil 25.5%, SOCAR 10%, Lukoil(러시아) 10%, Total(프랑스) 10%, NIOC(이란) 10%, TPAO 9%로 각각 지분을 가지고 참여 중
 - Shah-Deniz 2단계 개발 시, 연간 160억㎥의 가스가 추가로 생산될 예정이며, 이를 터키, 유럽 등으로 수출할 예정임

□ 석유·가스 분야 주요국 진출현황

- 아제르바이잔 석유·가스 개발에서 주도적 역할 담당
 - BP : ACG(34.1%), Shah-Deniz(25%), Araz-Alov-Sharg(15%), I nam(25%) 등 4개 프로젝트 사업운영자로 2005년 ACG에 27억 달러, Shah-Deniz에 13억 달러, BTC 송유관에 12.3억 달러 투자
 - Caspian Energy Group : 내륙 Shirvani 유전(85%) 사업운영자
- (미국) 영국에 이어 아제르바이잔 석유·가스 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성과는 부진
 - ExxonMobil : 1995-2003년간 15억 달러 이상을 투자, Araz-Alov-Sharg 지분 15%, ACG 지분 8%를 보유
 - 기타 : Devon Energy는 ACG(5.6%), Unocal은 ACG(10.2%), Conoco는 Zafar-Mashar(20%)에 투자, Chevron은 Absheron(30%)의 사업운영자였으나 탐사 및 시추 결과 경제성 있는 유전발견에 실패하여 2007.1월 계약 연장 포기 후 철수
- (노르웨이) 영국·미국에 이은 3번째 투자국으로 Statoil이 1992-2003년간 총 12.3억 달러를 투자했을 뿐 아니라 Shah-Deniz(25.5%) 프로젝트의 최대 투자자중 하나로 ACG(8.6%), Araz-Alov-Sharg(15%), BTC 송유관(8.71%), SCP 가스관(25.5%)에도 참여
- (터키) 국영 TPAO는 BP, ExxonMobil, Statoil에 이은 4번째 투자자로 1994-2005년간 20억 달러를 투자, ACG(6.8%), Shah-Deniz(9%), Araz-Alov-Sharg(10%), Kurdashi-Araz-Kirgan Daniz(5%) 등 4개 프로젝트와 BTC 송유관(6.53%), SCP 가스관(9%)에 출자
- (러시아) 서방에 비해 아제르바이잔 투자가 상대적으로 미진한 편으로 Lukoil사는 Yalama 프로젝트(80%)의 1차 탐사에서 만족스러운 성과를 거두지 못했으며, ACG 지분 10%를 2.45억 달러에 인수해 참여
- Itochu가 ACG에 3.9%, Mitsui가 Kurdashi-Araz-Kirgan Daniz에 15% 투자하였으며, IAOC 컨소시엄(Japex, Inpex, Teikoku, Itochu 참여)이 Atashgah 프로젝트에 사업운영자(지분 50%)로 참여하였으나 개발에 실패하고 2003년 철수
- (중국) 주로 내륙 유전 개발에 참여. 중국석유천연가스공사(CNPC)가 Gobustan(62.8%), Kursangi-Garabagli(50%)에 출자하고 있으며 Muradkhanli-Jafarli-Zardab에는 영 Ramco 지분을 인수하여 참여

다. 석유화학단지 건설 프로젝트

- 바쿠에서 남쪽으로 60km 떨어진 가라다흐 지역(상가찰 터미널 근처)에 신규 오일·가스처리 및 석유화학단지(OGPC*) 건설 추진
 - Oil and Gas Processing Petrochemical Complex
- 동 단지에는 정유시설, 가스처리시설, 석유화학플랜트 및 전력발전소가 들어설 예정으로 투자규모는 약 150억 달러. 연간 처리용량은 석유 1천만톤, 가스 100~150억㎥, 석유화학(폴리에틸렌 70만 톤, 폴리프로필 13만 톤, 벤졸 4만 톤, 스티롤 11만톤, 질소비료 100만 톤)

3.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아제르바이잔은 구 소련 9 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 체결 현황은 다음과 같다.

연번	FTA 체결국	체결일
1	러시아	1992. 09. 30
2	우크라이나	1995. 07. 28
3	그루지야	1996. 03. 08
4	투르크메니스탄	1996. 03. 18
5	우즈베키스탄	1996. 05. 27
6	카자흐스탄	1997. 06. 10
7	타지키스탄	1997. 08. 13
8	키르기즈스탄	2004. 01. 12
9	백러시아	2004. 03. 31

자료: 아제르바이잔 외무부

이 외에 아제르바이잔은 1999년 EU와 동반자적 협력관계구축 협약을 체결했다. 동 협약은 아제르바이잔의 법체계를 EU 법체계와 합치시키고, 지적재산권, 투자자산, 사유재산 보호, 아제르바이잔을 최혜국(MFN: Most Favored Nation)으로 대우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 밖에 아제르바이잔은 EU, 일본, 미국으로부터 일반특혜관세(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우대를 받고 있다.

아제르바이잔은 향후WTO에도 가입할 계획이나 아직까지 가입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은 하고 있지 않다.

III. 무역

1. 수출입동향

- 경상수지 흑자는 유가 급락으로 2008년 164억 달러에서 2009년 미화 102억 달러로 떨어졌으나 원유/가스 생산 확대 및 유가 회복으로 2010년에는 150억 달러(약 GDP의 22%)로 회복되었으며 2011년에 다시 원유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119억 달러로 떨어짐
- 2012~16년 기간 중 경상수지 흑자는 GDP의 약 10% 수준에서 유지될 전망. 수출이 수입의 두 배 이상이 되어 무역 흑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기 때문. 서비스 수지의 경우, 2단계 Shah Deniz 가스전 개발에 따른 대규모 적자가 2012년부터 발생할 것으로 보이나 막대한 무역수지흑자를 배경으로 경상수지는 계속 흑자 기조 유지 전망
- 최대 수입품목은 기계류 및 장비이며 그 다음으로 중요한 수입품목은 식료품(주로 가공식품, 음료, 담배)

주요 수출입품목 현황(2011)

구분	품목명	2011년
		비중(%)
수입	기계류 및 장비	32.9
	식료품	15.1
	금속제품	14.5
	운송수단	18.3
	기타	19.2
	계	100
수출	석유제품	94.4
	식료품	2.7
	금속제품	0.9
	플라스틱	0.5
	기타	1.5
	계	100

자료: EIU(2012.7. Report)

- 대 아제르바이잔 최대 교역국은 이탈리아로 전체 무역규모의 26.4%를 차지하고 있음. 이탈리아는 아제르바이잔 원유의 최대 수입국임. 그 다음으로 비중이 큰 교역국은 프랑스로서 전체 교역의 12.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 러시아가 7.8%로 제3위를 점하고 있음

2011년 아제르바이잔 주요 교역국가 현황

순위	국명	교역금액(백만 USD)	비중(%)
1	이탈리아	9595	26.4
2	프랑스	4645	12.8
3	러시아	2828	7.8
4	미국	2435	6.7
5	터키	1758	4.8
6	우크라이나	1467	4.0
7	독일	1368	3.8
8	인도네시아	926	2.6

자료원: 아제르바이잔 국가통계위원회

2.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 2002년 이후 對 아제르바이잔 수출 증가 추세 지속
- 원유생산확대 및 고유가로 인한 아제르바이잔 수입시장 확대로 우리나라의 對 아제르바이잔 수출은 증가 추세이며 특히, 2006년 5월 고 노무현 대통령의 아제르바이잔 방문, 2007년 4월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수출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2008년 9월 세계 금융 위기 발발을 계기로 아제르바이잔 소비시장도 침체를 겪으면서 2008년에 정점에 달했던 교역은 '09년에 급감하였음. 그러나 2010년 세계 경제가 회복되고 국제유가도 다시 회복되면서 대 아제르바이잔 수출은 다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음. 2010년 수출은 23.1% 증가하였으며 2011년에는 18.3% 증가함. 수입은 2007년을 정점으로 계속 하강하고 있는데 이는 아제르바이잔으로부터는 원유나 가스를 제외하고는 수입할만한 품목이 없기 때문
- 2010년 주요 수출 품목은 자동차 및 부품, 합성수지, 철구조물, 경보신호기, 엘리베이터, 무선전화기 등 생활가전, 의료기기, 건설중장비 등이었음. 2011년에는 자동차 및 부품, 합성수지 등의 상위 주요 수출품목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건설중장비, 컴퓨터 주변기기, 에어컨, 타이어, 무선전화기, 교통신호기 등의 수출이 증가함. SK C&C가 참여하는 ITS(지능형교통시스템) 프로젝트로 인해 철구조물, 경보신호기, 기타조명기기 등의 수출이 일시적으로 확대된 것으로 추정됨

우리나라의 對 아제르바이잔 수출입 동향

구분	단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01-06월)	
교역규모	수출	백만달러	11	19	32	47	130	255	150	184	217	148
교역규모	수입	백만달러	0	1	0	0	316	12	9	0	0	0
무역(상품)수지	백만달러	11	18	32	47	-185	243	141	184	217	148	
수출증가율	%	189.9	74.4	68.6	46.9	175.2	95.5	-41.3	23.1	17.9	50.3	
수출국 순위	순위	133	124	114	115	95	85	92	94	95	95	
수입국 순위	순위	225	155	187	212	57	116	121	196	183	183	

자료: 한국무역협회

對 아제르바이잔 수입은 2007년 원유수입으로 한 해 급증한 이래 계속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음.

- 한국측 통계로는 대 아제르바이잔 수입이 0이나 아제르바이잔측 통계에는 2011년 3억 달러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한국의 대 아제르바이잔 주요 수출품목

(단위: US\$천, %)

순위	품목명	2011		2012(1~6 월)	
		금액(US\$천)	증가율(%)	금액(US\$천)	증가율(%)
	총계	217	17.9	148	50.3
1	승용차	127	7.1	89	47.7
2	건설중장비	8	769.7	10	144.7
3	합성수지	14	40.5	8	-3.5
4	에어컨	3	74.8	6	183.4
5	화학기계	0	214.5	4	6,131.5
6	기타플라스틱제품	2	284.5	3	1,155.8
7	타이어	3	1570.9	3	159.4
8	자동차부품	4	135	2	145.5
9	화물자동차	15	32.3	2	120.1
10	철구조물	1	-86.5	2	2,257.4
11	철강 및 비합금강형강	0	-	2	-
12	의약품	0	129	1	757.7
13	기타조명기기	0	-99.7	1	126,792.1
14	무선전화기	3	-9.3	1	-22.5
15	냉장고	1	1,737.1	1	20.7
16	컴퓨터	2	284.3	1	348.4
17	의료용전자기기	2	6.6	1	78.4
18	차단기	1	279	1	452.3
19	운반하역기계	4	-8.0	1	-60.5
20	기타정밀화학원료	0	-	1	-
21	진공청소기	1	-	1	104.5
22	X 선 빛 방사선기기	1	47.6	1	1,342.1
23	음료	1	28.6	0	-18.8
24	TV 카메라 및 수상기	1	-12.2	0	33.8
25	의자	1	46,934.5	0	-
26	컴퓨터주변기기	8	98,509.1	0	-100
27	세탁기	1	483.2	0	-36.5
28	냉장고	1	1,737.1	1	20.7
29	에어컨	3	74.8	6	183.4
30	칼라 TV	1	1,836	0	748.4
31	기타기계류	1	1,585.8	0	-
32	교통신호기	3	-	0	452.3

자료: 한국무역협회

3. 수입규제제도

가. 수출입 제한 또는 허가 품목

- 아래 품목은 수출입 시 필히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함
- 무기 및 군용장비, 폭발물, 무기에 대한 과학지식 및 기술, 우라늄 방사물질 및 핵 기술, 마약 및 향정신제, 혈액 및 혈액성분, 야생동물 및 식물, 자원에 대한 정보, 고미술품, 일부 과학 보고서나 발명품, 의학 시설, 살충제, 동물용 약제, 다이아몬드 원석에 대한 수출, 아제르바이잔의 전략적 자원 수출 등
- 에틸 알코올이나 술, 담배는 일정한 수입쿼터가 있으며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함. 또한 동물성 식품의 수입은 제한되어 있으며 아제르바이잔의 State Veterinary Committee(SVC)의 승인을 받아야 함. 거대한 위성 안테나 등의 통신 장비는 Ministry of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al Technologies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자연인이 아제르바이잔 역내로 수입할 수 없는 품목 또는 국제우편서비스로 수취가 금지된 물품 목록은 다음과 같음
- 개인무기, 군사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물품, 폭발물, 군장비
- 방사성 물질
- 마약, 환각제 및 관련 장비
- 음란, 폭력 및 테러 선동물
- 마약, 환각제, 폭발물, 독극물 제조 원료

나. 비관세 무역장벽

빈번히 바뀌는 통관 규정, 세관의 자의적인 관세율 적용, 까다로운 절차 등이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

4. 대한수입규제동향

한국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입규제는 없음

5. 관세제도

가. 관세 제도

아제르바이잔으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한해 우선 신고된 가치의 15%, 10%, 5%, 혹은 0.5%의 증가세(ad valorem tax)가 붙는다. 그러나 일부 품목의 경우 종량세(specific tax)나 혹은 증가세, 종량세 두 가지 관세를 합한 Combined Tax가 붙는 경우도 있다. 종량세나 Combined Tax는 증가세와 같이 15% 관세율을 최고치로 두고 있다.

일부 해외기업들은 최고 관세율이 15%이나 세관의 부패가 심하며, 체감 관세율이 40%에 달한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통관수수료는 모든 수입/수출에 대해서 AZN550(약 700\$)까지 부과될 수 있다.

수입된 품목은 관세를 내기 전에 최고 3년까지 세관 창고에서 보관할 수 있다. 물품이 창고를 떠나는 순간 해당하는 모든 관세를 내야하며 또한 보관료가 청구된다. 과거에 상의한 바가 없으면 보관료를 매우 높게 청구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세관 창고에 보관하기 전에 보관료에 대해 사전 상의하는 것이 좋다.

아래 상품을 포함한 일부 수입품은 관세를 면제받음

- 외교용품
- 국제기구의 지원 프로젝트에 쓰일 용품
- 임시 수입품
- 해외 기업이 투자한 회사에 일하는 외국인의 개인용품

나. 과세 종류

수입관세율	0~15%(과중평균관세율: 5.8%)
기타 과세 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세: 0.08~12.5%(담배, 술, 휘발유, 차 수입 시) - 차: 0.15AZM/cc(2,000cc미만)1AZM/cc+300AZM(2,000~3,000cc) - 부가세: 18% - 통관수수료: 0.15(모든 수출입 거래 시 부과)
수출관세	없음(단, 일부 금속 및 금속제품 제외)

자료: Doing business in Azerbaijan 2011

6. 주요인증제도

일반적으로 구소련 러시아연방 표준위원회 (GOST) 의 SNIP Code를 따르나 최근 들어 유럽 표준을 동시에 사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혼선이 가끔 발생하기도 한다.

7. 지적재산권

가. 개요

1996~1997년도에 대대적인 지적재산권 등록 및 보호 법규를 정비하였다. 지적재산권 관련된 법률이 현재 Copyright Law, Law on Trademarks and Geographic Names, Law on Patents, Law on Topology of Integral Schemes 등 4개의 법안이 있다. 이들 법안을 토대로 모든 종류의 산업재산권(발명품, 특허, 실용신안, 산업디자인, 상표 등), 저작권(copyright) 등이 보호받는다. 이러한 지적재산권을 담당하는 총괄 부서는 없으나 State Agency for Standardization, Metrology and Patents에서 특허 및 상표 등록을 담당하고 State Copyright Agency에서 저작권 등록을 담당하고 있다.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 Eurasian Patent Convention (EAPC) 등의 국제 회의에 가입되어 있으나 아직 현실적인 지적소유권 보호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허는 한국과 같이 선출원주의(First-To-File)를 채택하고 있다.

나. 특허, 실용신안, 산업디자인 및 상표권 보호기간

보호기간은 아래표와 같다. 상표는 10년마다 재등록 할 수가 있다.

다른 사람이나 법인에게 소유한 특허 및 라이선스를 기증할 수 있으며 기증 시 필히 해당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특허 보호기간

	보호기간	비고
특허	20년	새롭고 실용적이며 독창적인 발명품
실용신안	10년	새롭고 산업적으로 실용적인 개량기술
산업디자인	10년	외부 모양을 결정하는 예술적이나 구조상의 디자인

다. 저작권

저작권은 따로 등록할 필요는 없으며 작가가 살아있는 동안과 사후 70년간 보호된다. 컴퓨터 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 또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된다.

라. 지적재산권의 보호

아제르바이잔은 2005년까지 미국 국무성의 수퍼 301조 watch-list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2006년 이후 동 리스트에서 삭제되었다. 이는 아제르바이잔이 지식재산권 관련 국내법을 정비하거나 새로운 입법을 약속하고 WIPO 인터넷 조약 및 WIPO 저작권협약에 가입하는 등 지식재산권 보호 체제를 강화한 덕분이다.

이러한 법률적 조치와 별도로 지재권 위반사범에 대한 단속이나 일반국민에 대한 계몽 등은 일반적인 개도국 수준을 벗어나지 않고 있어 불법제작 DVD, CD 등이 시중에 다량으로 유통되고 있을 뿐 아니라 상표권 침해사례 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로 바쿠 시내 중심에 있는 사힐(Sahil) 역(驛) 주변 상가에 중국의 짝퉁 상품을 취급하는 상점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특히 중국산 불법위조 상품이 상당수 아제르바이잔에 수입되고 있으나 세관당국과 업자간 담합 또는 세관당국의 지재권 위반 상품 단속능력의 부족에 따라 제대로 적발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 법적 절차(지적재산권을 침해 받았을 경우)

상표권, 특허, 실용신안, 산업디자인을 포함한 모든 산업재산권 (Industrial Property Rights)의 침해는 1심 법원은 특허청 심판 위원회(The Appeal Commission of the Patent Office)에게 담당한다. 2심 법원으로는 일반인 및 법인을 상대로 하는 민간 법원과(District Court, City Court, Supreme Court, 3 단계로 구성) 법인만 상대하는 Economic Court가 있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소송은 민간 법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기타 지적재산권 보호는 아제르바이잔 세관(State Customs Committee)과 경찰청에서 담당한다.

8. 통관 / 운송

가. 수출입 신고

□ 화물 수입 시 제출서류

- 서명된 수입 계약서(Import Contract). 필히 계약 번호도 적혀 있어야 함
- 수입 신고서
- 해당하는 국가 기관에서 발행한 허가증(필요 시)
- 수입 화물의 선하증권(Bill of Landing)
- 상업 영수증(Sales Invoice)
- 원산지 증명서(C/O)
- 수입 화물의 품질 증명서

□ 화물 수출 시 제출서류

- 기업의 법적 신분 증명서
- State Statistics Committee상의 기업의 법적 신분 증명 번호(Legal Entity Code)
- 계약서 사본(필히 계약 번호가 적혀 있어야 함)
- 원산지 증명서(C/O)
- 공인된 은행으로부터 받은 선불 증명서류, 또는 신용장(letter of credit)
- 해당하는 국가 기관에서 발행한 허가증(필요 시)
- 수출 화물의 영수증(Sales Invoice)과 수출 화물의 포장 명세서(Packing list)
- 수출신고서

나. 임시수입(Temporary Import) 및 재수출 제도

아제르바이잔으로 원재료를 수입해 온 뒤 제품 제조 후 일정 시간 안에 재수출을 할 경우에는 Draw-back scheme을 통해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확연한 절차가 없어 일반 기업이 활용하기는 어렵다. 또한 세관에서 제조 및 재수출 시기를 정하며(보통 수입 후 2년) 최소한 일정량 이상을 제조해 수출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아제르바이잔으로 물품을 임시수입 할 경우 반드시 먼저 세관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보통 6개월 이내에 재수출해야 한다. 또한 수입했을 때와 재수출할 때 물품의 일반적인 마모 및 손실 외에는 원상 그대로 수출되어야 한다.

임시수입품은 수입 시 부가가치세(VAT)를 포함한 관세를 지불하지만 재수출 후 같은 Draw-back scheme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일반적인 재수출 때와 같이 임시수입 시에도 명확한 절차가 없어 돌려받는 데는 어려움이 많다.

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관세당국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통관보류 등의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관세공무원이 통관 시 웃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세관감사는 까다로운 편이며, 심사 및 물품검사 단계에서 여러 가지 선적서류상의 하자로 벌금을 물리는 경우가 있다. 현지 수입업자에 따르면 통상 컨테이너 1개 물량 수입 시 수입물품

가격에 관계없이 1만~1만5천 달러 지불을 요구 받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특히 농업 가공품) 법적 근거 없이 통관을 보류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통관대행업의 경우 관세위원회의 영업허가가 필요하나 현재 소수의 업체만이 허가를 보유하여 자체 통관처리가 불가능한 중소기업의 경우 통관대행 위탁 시 불편이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상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이란 반다르 압바스 항을 통해 이란을 경유하는 방법과 블라디보스톡으로부터 러시아 철도를 이용하는 방법, 흑해 그루지야 항구를 통해 들어오는 방법 등이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물류비용이 상당히 발생한다. 한국에서 직항 항공편은 없으며 항공수출의 경우 두바이, 이스탄불, 모스크바, 타슈켄트, 우르무치 등을 경유하여야 한다.

IV. 투자

1. 투자환경

1) 외국인 투자 개방성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가 경제 발전에 끼치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FDI를 공식적으로는 환영하고 있다. 1994년 이래 대규모 외국인 투자가 유입되면서 아제르바이잔 에너지 분야는 눈부신 발전을 보였지만 극심한 관료주의, 허술한 법치제도, 정경 유착된 이해집단의 독점행태는 非에너지 분야로의 외국인 투자를 저해하였다.

2007년 이후로 다소의 개선을 보이고 있으며, 세계은행(World Bank) '국가별 비즈니스 환경(Doing Business)' 보고서에 따르면, 아제르바이잔은 2007년 이후 꾸준히 비즈니스 환경이 개선되어 2012년에는 66위에 랭크 되었다.

'92년 제정된 외국인투자보호법은 국가안보 분야처럼 법으로 금지하는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의 투자 활동을 외국 투자자들에게도 내국인과 똑같이 허용하고 있다. 다만, 에너지, 통신 및 금융 부문에 있어서는 정부가 일정 부분 통제하고 있다. 예컨대, 유전이나 가스전을 개발하려면 국영석유회사(SOCAR: State Oil Company of Azerbaijan)와 생산물분배협정(PSA: Production Sharing Agreement)을 체결하고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 금융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외국소유 은행의 비중이 전체 상업은행 시장의 50% 이내가 되도록 제한하고 있다.

비에너지 분야에도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려면 안정되고 예측 가능한 비즈니스 환경을 만드는 일이 필수불가결한데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이러한 맥락에서 국세부(Ministry of Tax) 내에 'One-Stop-Shop'이라는 간소화된 회사등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등록에 소요되는 시간을 수개월 또는 수주일에서 3일로 획기적으로 단축시켰다. 최근 세계은행(World Bank) '국가별 비즈니스 환경(Doing Business)' 보고서에서 아제르바이잔의 랭킹이 크게 개선된 것은 'One-Stop-Shop' 도입이 기인하고 있다. 다만 등록 소요시간 단축 이외에 실질적인 투자 환경은 별다른 개선이 없다.

외국기업은 현지 기업과의 합작기업(Joint Venture), 자회사(Subsidiary), 대표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 지사(Branch) 등의 형태로 아제르바이잔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 보호법에 따르면 외국투자기업은 내국기업과 동등한(not less favored) 대우를 받으며, 적법하게 세금을 냈다면 과실송금이 보장된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불리한 법이 입법되면 이전 법에 의해 10년간은 보호받게 된다. 다만, 이 조항은 세법 개정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국유화 및 징발에 대한 보상

외국인 투자자는 몇 가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국유화 또는 징발 조치에 대해 외국인 투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 국민이나 국가 이익에 해가 되는 경우, 의회 결의에 따라 해당자산을 국유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자연재해, 전염병, 비상사태 발생 시 내각의 결정에 따라 징발 조치도 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기업이 국유화나 징발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법에 의해 즉각적인 상응하는 보상을 받게 된다. 아직까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국유화나 징발 조치는 한 건도 없었다.

3) 분쟁 해결

아제르바이잔 분쟁 해결 제도는 대단히 미흡하다. 재산권이나 계약상 권리를 보호 받을 효과적인 수단이 결여되어 있다.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공식적으로 사법부에 대해 중립을 선언하고 있지만 사법부는 힘이 없고 판사들은 서구 자본주의적인 세법이나 경제법을 잘 모르고 경험도 부족하다. 상거래 분쟁을 관장하는 경제법원(Economic Court)의 강제 구속력은 미약하며 또한 부패가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판결과와 일관성도 부족하다.

아제르바이잔은 국가 간 투자 분쟁 처리에 관한 세계은행 협약, 다자간투자보증기구(MIGA: 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외국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뉴욕협약에 가입되어 있다. 그리고 아제르바이잔 민사소송법은 외국중재판정이 자국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판정결과를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상 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아제르바이잔 파산법(Bankruptcy law)은 제 기능을 못하고 있으며 유명무실하다.

4)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및 의무사항

아제르바이잔에는 오일가스분야 생산물분배협정(PSA) 체결 시 제공하는 인센티브 외에는 아무런 투자 인센티브도 없다. 정부의 민영화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기업을 인수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은 향후 재투자과 고용승계의 의무를 갖게 되나 아제르바이잔 국내로부터 필요물품을 구매해야 한다거나 생산물의 일정량을 수출해야 하는 의무는 갖지 않는다. 그리고 아제르바이잔 국민을 반드시 고용해야 할 의무도 없다. 다만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려면 고용주는 노동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제르바이잔에서 취업하려는 외국인은 거주지 관할당국에 신고 후 노동부로부터 노동 허가를 받아야 하며 내국인과 같이 소득세 및 사회보장세 납세 의무를 진다. 3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는 ID카드도 취득해야 한다. 외국 법인의 대표사무소나 지사의 대표 및 부대표(deputy)는 노동 허가를 받을 필요 없다.

5) 자산 소유

아제르바이잔에서 부동산 거래를 규제하는 법률은 모기지법(2005), 토지법(1999), 토지개혁법(1996), 토지임대차법(1999), 토지시장법(1999) 등이 있다. 아제르바이잔 국적자나 아제르바이잔 법인(외국 투자기업 포함)은 합법적으로 부동산을 소유, 매매할 수 있으나 외국인이나 외국기업은 토지를 소유할 수 없고 임차만 할 수 있다.

6) 재산권 보호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세계은행과 함께 자산등록시스템 개선을 추진해오고 있지만 동 시스템에는 여전히 불필요한 요구사항들이 많고 뇌물을 받는 등 비효율적인 면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90년대 중반 아제르바이잔은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의 지원 하에 국가차원의 지적재산권 등록 및 보호책 마련에 착수하였다. 이러한 조치의 일환으로 ‘96년에 저작권법, ‘97년에 특허법, ‘98년에 상표법이 입법되었다. 아제르바이잔은 현재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파리 협약, 문학예술작품 보호에 관한 베른 협약 등 다수의 국제 협약에 가입되어 있다.

아제르바이잔 국가저작권보호청(State Copyright Agency)은 다수의 정부부처 대표자들로 구성된 반해적행위위원회(Anti-Piracy Commission)를 결성하고, 기습검열,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민사 소송을 주도하는 등 최근 다소 개선된 면을 보여주고 있으나 지적재산권 보호는 여전히 잘 되지 않고 있다. 해적판 소프트웨어나 영상물, 짝퉁 명품이 팔리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7) 규제 제도의 투명성 및 부정부패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지난 몇 년간 규제 제도를 개선해 왔지만 여전히 투명성이 결여되고 관련 공무원의 부패소지를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 투명치 못한 정책, 자유경쟁을 촉진하는 효과적인 법규 부재가 외국인 투자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아제르바이잔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많은 기업인은 관료주의적인 행정 때문에 필요한 허가나 인증을 받는 데에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며 하소연을 하고 있다.

부정부패는 특히 비에너지 분야의 외국인 투자를 저해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반부패 법이 있긴 하지만 유명무실하며 각종 규제 제도, 과세, 분쟁 해결제도에 있어 부패 소지가 많다. 정부의 투명치 못한 행정, 규제 남용, 미약한 계약이행 시스템은 비즈니스 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만들고 있다.

2007년 여름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투명성 재고 및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국가 전략(2007~2011)을 채택하고 공무원들의 윤리강령을 도입하였다. 동 전략은 기존의 반 부패 프로그램을 대체, 보완하는 것으로 돈세탁 방지, 회계법 개정, 정부 구매의 투명성 재고, 반 부패위원회의 활동 개선, 관료주의적 불필요한 규제요소 제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은 2011. 1월말 반 부패 정책을 강화하도록 하달하였고 2월 14일에 교통경찰 근무지침 개선 법령에 서명하였다. 이에 따르면, 교통법규 위반자는 현금이 아닌 은행 계좌로 벌금을 지불하여야 하며 징수된 벌금의 4분의 1은 교통경찰 급여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반 부패 조치는 부패 관행을 없애려는 순수한 의도라기 보다는 중동 및 아프리카 소요사태의 전이를 의식한 정부 기득권세력의 '민심 달래기'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8) 노무

아제르바이잔은 미숙련 노동 인력을 풍부히 갖추고 있는 반면 숙련 기술자 등 우수한 전문 인력을 채용하기는 어렵다. 이는 양질의 교육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또한 자국 내 취업곤란에 따라 우수인력은 외국으로 유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90년대에 구 소련의 산업경제체제가 붕괴되면서 수많은 실업자가 양산되었다.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실업률을 5~6%대로 발표하고 있으나 실제 실업률은 수십%대인 것으로 추정된다.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월 최저임금을 40 AZM에서 2012년 93.50AZM(약 \$120)으로 인상하였다. 1999년에 발효된 노동법에 따르면 주 노동시간은 40시간이고 파업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2. 외국기업 투자동향

대(對) 아제르바이잔 FDI(Foreign Direct Investment)는 거의 대부분이 오일가스 부문에 유입되고 있다.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에 따르면, '07년 아제르바이잔 1인당 FDI 누적액은 미화 1,140 달러로 CIS 국가 중 카자흐스탄(\$2,200) 다음으로 높다.

국가별 FDI 현황은 (아제르바이잔 FDI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아제르바이잔 국제석유가스 컨소시엄인 AIOC(Azerbaijan International Operating Company) 지분 비율에서 유추해 보면, 영국(37.4%), 미국(22%), 일본(15.3%), 노르웨이(8.6%), 터키(6.7%), UAE, 이란, 러시아, 프랑스, 이탈리아 등이다.

2011년 아제르바이잔 FDI 유입액은 약 30억 달러로 집계되었으며 영국이 부동의 1위 투자국 지위를 지속하고 있다.

영국 투자의 대부분은 BP사가 투자한 것으로 BP는 ACG 유전, Shah Deniz 가스전, BTC 송유관, Sangachal 오일터미널과 같은 유전 및 가스전과 관련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BP사의 2009년 발표자료에 따르면 BP는 94년 아제르바이잔에 처음 투자한 이래 누계로 295억 달러를 투자하였다.

2005~2006년에 BTC(Baku-Tbilisi-Ceyhan Oil Pipeline)나 SCP(South Caucasus Gas Pipeline Project)와 같은 대형 석유가스 프로젝트가 종결되고 외국투자기업의 과실송금이 시작되면서 '06년부터 대 아제르바이잔 FDI 순유입은 마이너스로 전환되었다.

지역별 FDI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해상 및 육상 유전이 위치해 있는 바쿠시에 외국인투자가 집중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바쿠와 인접해 있는 아제르바이잔 최대의 석유화학 산업단지인 숨가이트(Sumgait)시로 일부 FDI가 유입되고 있다.

향후에는 정유 산업 등 다운스트림 분야로 외국인 투자가 확산될 가능성도 있으나 부정부패 및 투자환경 열악 등 투자장애요인이 많아 대규모투자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非 에너지분야 최대 FDI 유입처는 이동통신 부문이다. 동 분야에 Azercell(터키, 스웨덴), Bakcell(이스라엘), Azerfon(독일, 영국), Cartel 등 4개의 외국투자기업이 활동하고 있다.

그 밖의 업종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많지 않다. 기타 분야 주요 외국투자기업으로는 Garadagh Cement, Castel(맥주), Coca Cola, Pepsi Cola, Hyatt Hotels Baku 등이다.

3. 우리기업 투자동향

한국의 대 아제르바이잔 투자는 1997년 1건 기록 이후 2006년까지 투자실적이 없었으나 2007년 3건, 2008년 6건, 2009년 16건, 2010년 6건이 투자되어 대체로 해를 거듭할수록 투자 건수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2007년 4월 아제르바이잔 대통령 방한 시 각종 MOU 체결 및 아제르바이잔의 IT, 항만, 도로, 건설 등 인프라 사업에 한국 기업 참여 확대를 촉구한 결과라 볼 수 있다. 한편 산유국으로서의 아제르바이잔에 대한 업계의 기대감도 동시에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기업의 자본 투자는 건설업이 전체의 93.5%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밖에 부동산업/임대업이 4.8%, 숙박/요식업이 1.4% 등을 차지하며, 연도별 투자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한국의 대 아제르바이잔 투자현황

(단위: 건, US\$천)

연도	신고건수	신고금액	투자건수	투자금액
1997	1	20	1	5
1998~2006	0	0	0	0
2007	9	30,369	3	76
2008	10	2,869	6	2,373
2009	19	11,425	16	771
2010	6	87	6	87
2011	8	875	7	874
2012	1	36	1	36
누계	54	45,681	40	4,222

자료: 수출입은행 (2012.03월까지의 통계)

2010년에 최초로 한국기업의 제조업(생산예정품목:차선용 도료) 합작투자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아제르바이잔측 파트너(방위산업부)의 관료적인 업무처리 등으로 인하여 실제 투자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아제르바이잔의 대 한국 투자는 아직까지 전무하다.

4. 주요 투자법 내용

1) 외국인투자유치제도 개요

가) 법령 및 형태

아제르바이잔 외국인투자 관련 법령은 ‘외국인투자보호법(1992.01.15)’, ‘투자활동법 (1995.01.13)’, ‘사유화법’ 등이 있다.

외국인 투자자는 법에서 금한 분야를 제외한 모든 투자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는 아래에서 열거한 투자 형태 중 어느 하나를 취할 수 있다.

- 현지 로컬 법인과 의 합작기업 설립
- 100% 출자기업 설립
- 로컬 기업 인수, 건물 등 자산, 주식 및 채권의 취득 등
- 토지 및 천연자원, 기타 권리 사용권의 취득

외국투자기업은 합작기업, 100% 출자소유기업, 외국법인의 현지 대표사무소를 포함한다.

나) 외국인 투자자 보호 주요내용

아제르바이잔 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외국인은 내국인과 차별 없이 동등하게 취급 받는다. 납세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한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행위로 발생한 이익금을 본국에 송금할 수 있다.

아제르바이잔의 법률 개정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개정법 적용이 10 년간 유예된다. 다만, 국가 안보, 국방, 공중 보건을 위한 경우나 세법개정의 경우는 유예되지 않는다

국민에게 해가 되거나 국익을 해치는 경우에 한해 국회 결의에 의해 국유화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자연재해나 전염병 발생 등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내각 결의에 의해 몰수 조치를 할 수 있다. 두 경우, 피해를 입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즉시 그리고 적절히 보상해야 한다.

분쟁 발생 시 아제르바이잔 법원 또는 양측의 합의에 따라 국제 중재기관에 중재를 요청하여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2) 투자유치 인센티브

아제르바이잔에는 에너지 및 농업 등 특정산업 부문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투자유치 인센티브는 없으며 지역에 따른 인센티브도 존재하지 않는다.

아제르바이잔은 안정적인 식량공급 확보를 위해 농업 종사자에게는 토지세를 제외한 어떠한 세금도 부과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농가에 필요한 유류는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다.

유전 및 가스전 개발을 위해 아제르바이잔 정부와 생산물분배협정(PSA) 계약 체결 시 통상 부가세 및 관세 면세 혜택이 주어진다. PSA 계약자 또는 하도급계약자(subcontractor)는 유전 개발에 필요한 각종 장비나 설비, 고정자산, 용역을 수입하거나 재수출 시 관세를 면제 받는다. 다만 통관수수료는 부과된다. 뿐만 아니라 원유 생산이나 수출입 등 관련 활동에 따라 창출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면세된다.

5. 진출형태별 절차

1) 개관

- 아제르바이잔에서 법인체(회사)를 설립하는 행위는 다음의 두 가지 법률적 근거에 의한다.
 - 민법 제2조 (2001년 9월 1일 개정)
 - 법인의 등기 및 등기부 관련법률(2003년 12월 12일 개정)
- 아제르바이잔에 투자 진출하고자 하는 외국인(법인)은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출 할 수 있다.
 - 대표사무소나 지사와 같은 형태
 - 법적 조직형태를 갖춘 법인체
- 등록절차 일원화
 - 2008년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영리법인 또는 대표사무소나 지사의 등록에 있어서 “원스톱숍(one-stop shop)” 시스템을 도입, 등록 절차를 대폭 간소화
 - 원스톱숍은 현지인 법인과 외국인 법인에게 공히 적용되며 아제르바이잔에서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의 회사설립은 단일 창구인 세무부에서 모든 관련서류를 일괄 처리

2) 투자형태별 법률적 구분

가) 대표사무소 및 지사

□ 법적 지위 및 형태

- 외국법인의 본격적 투자진출 이전에 대표사무소나 지사의 설립이 주로 이용되는데 외국 법인의 대표사무소와 지사는 아제르바이잔의 법인으로 간주되지 않음
- 아제르바이잔 민법에 따르면 대표사무소는 외국법인의 별도 하위부서로 해당법인의 이익을 대변하고 보호하는 기능만 갖고 있기에 대표사무소는 상업 활동에 종사할 수 없음
- 지사는 대표사무소의 기능을 포함하여 법인의 일부 또는 모든 기능에 참여하는 법인의 별도 하위부서이므로 지사의 활동 범위는 대표사무소보다 더 넓다고 할 수 있음
- 지사는 법인의 일부 또는 모든 기능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상업 활동에 종사할 수 있음

□ 등기

- 외국 영리법인의 지사와 대표사무소는 세무부에 등기하여야 하며, 외국 비영리법인은 법무부에 등기하여야 함
- 영리법인의 지사와 대표사무소는 등기를 위해 세무부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원칙적으로 접수일로부터 업무일 3일 이내에 등기가 완료됨

- 비영리 법인의 지사와 대표사무소는 법무부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신청일로부터 업무일 40일 이내에 등기가 완료됨
- 2009년 9월 1일 개정 발효된 관련법령에 따르면 외국 비영리 법인의 지사와 대표사무소는 해당 모(母)회사와 작성한 합의문안대로 등록해야 함. 이 개정된 법령은 아제르바이잔에 소재하는 외국인 비영리법인의 지사나 대표사무소의 부책임자는 아제르바이잔 시민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비용

- 외국법인의 지사, 대표사무소 등기비용은 AZN 220(약 US\$280)이며, 등기를 마친 후에 직인(일종의 회사 인감)과 은행계좌를 개설

나) 영리법인

- 아제르바이잔에서 설립된 영리법인은 세무부 국가등기 대상이 되며, 세무부는 필요서류를 제출 받은 후 3 영업일 이내에 등기가 이루어 지도록 해야 함
- 은행, 보험회사 및 기타 기업의 등록세는 AZN 220(약 US\$280)이며 일반 기업의 경우 AZN 11(약 US\$15)임.
- 아제르바이잔에서 법인설립에는 일반적으로 설립 결의서와 정관이 필요. 그러나 설립 결의서는 1인 참여자에 의한 법인 설립 시에는 필요하지 않음.
- 설립 결의서는 설립자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설립자와 법인 사이 관계를 규정함. 일반적으로 정관은 법인의 구조와 경영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경영자와 주주의 권리를 규정함
- 아제르바이잔의 기업에 관한 법률은 합자 주식회사 정관자본금의 최저한도를 정해 놓고 있으며 일부 업종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은행과 보험회사) 특정한 법률에 의해 추가 요건이 부과됨.
- 아제르바이잔 민법은 법인을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구분하며, 영리법인은 다음의 다섯 가지 형태로 구분됨
 - 합자회사(Joint-Stock Company, 폐쇄형과 개방형으로 나뉨)
 -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 합명회사(General Partnership)
 - 유한합명회사(Limited Partnership)
 - 추가책임회사(Additional Liability Company)

- 아제르바이잔에서 선호되는 회사설립형태는 합자회사와 유한책임 회사이며, 아제르바이잔 법령에 의한 두 회사유형의 차이는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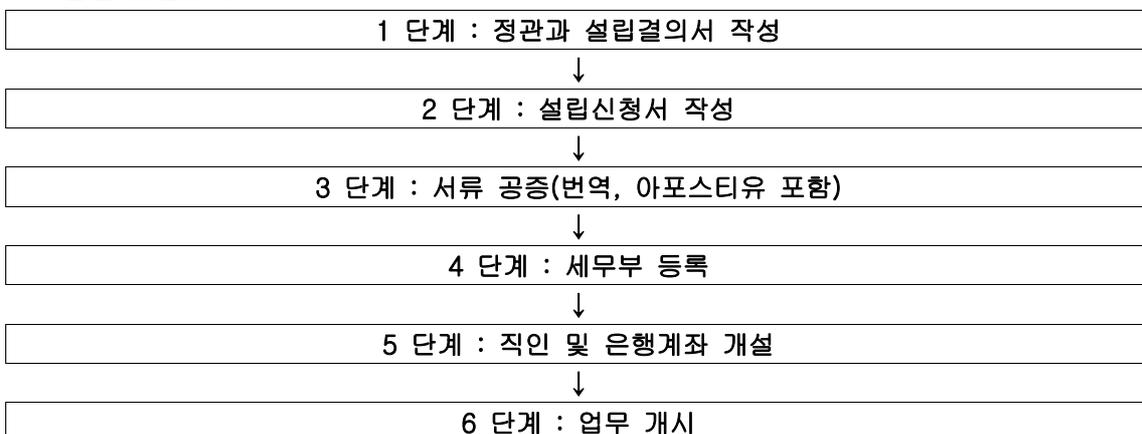
구분	JSC(합자회사)	LLC(유한책임회사)
발기인수	- 최소 1명 이상 - 최대 50명(폐쇄형) - 50명이 초과될 경우 개방형으로 전환 또는 청산	- 최소 1명 이상 - 법정 최대 인원에 대한 제한은 없음.
발기인의 책임	- 자본납입액 한도에 대해 책임	
최소자본 요건	- 개방형: AZN 4,000 - 폐쇄형: AZN 2,000 - 정관자본(Charter Capital): 등록 전 전액 납입 - 현물출자: 독립 감사인에 의한 평가 필요 - 자본가치결정: ① 신규 설립법인의 경우 예는 발기인 회의, ② 기존 법인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결정	- 자본요건은 없으나 민법(the Civil Code 2000)은 적정한 행정 기관이 정하도록 규정 하고 있음. - 정관자본(charter Capital): 등록 전 전액 납입 - 현물출자: 독립 감사인에 의한 평가 필요
증권	- 증권은 국가증권위원회(the State Securities Committee)에 등록되어야 함. - 개방형 JSC는 공개매수(Open Offering), 폐쇄형 JSC는 비공개매수(Close Offering)을 통해 증권 매매	- 납입자본이 증권일 필요는 없음 따라서 국가증권위원회 등록이 불필요
지분양도 요건	- 개방형: 지분양도제한 없음. - 폐쇄형: 주주들은 타 주주의 지분양도에 우선 반대권이 있음.	- 설립 인가서에 따로 조항이 없으면, 사원은 제 3자에게 지분 양도 가능함.
기업지배 구조	- 주주총회(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정관 및 자본금 변경, 청산, 조직 변경 등 중요 경영 사안에 대한 결정권을 가짐. - 감독기구(Supervisory Board): 주주50인 이상의 JSC는 반드시 구성하여야 함. - 경영기구(Management Body): 이사회 또는 개별이사의 형태를 가질 수 있음.	- JSC와 동일 단 감독기구는 강제요건이 아니며, 사원이 원할 경우 설치할 수 있음.
공시	- 연차보고서와 대차대조표를 의무적으로 공시	
청산 및 구조조정	- 자발적 청산, 구조조정은 주주총회 결정에 의함. - JSC는 LLC로 조직변경 가능	- 자발적 청산, 구조조정은 주주총회 결정에 의함. - LLC는 JSC로 조직변경 가능
조세	조세처분 동일	

3) 외국인 투자진출 선호형태

- 아제르바이잔에서 외국인들이 대체로 많이 선택하는 투자진출 형태는 아래 2가지임
- 지사 혹은 대표사무소
- 세제 운영상 또는 고용 관련 경영 및 관리가 간편하고 현지에서의 사업영위에 법적 제한이 적은 유한책임회사(LLC)
- 대규모 사업의 경우에는 주식회사(Joint Stock Company)가 적합하나 초기 진출 시에는 거의 활용되지 않음

4) 설립절차 및 구비서류

- 최근 도입된 One-Stop-Shop 시스템으로 인해 모든 영리 법인 및 지사, 대표사무소 설립과 등록은 세무부에서 총괄적으로 담당하고 있음
- 설립 시 필요한 모든 서류는 영문 번역 및 공증을 받아야 하며, 자국 외교통상부의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공식 서류로 인정. 모든 준비된 서류는 아제르바이잔어로 번역, 아제르바이잔 내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아야 현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서류로 인정 받음
- 대표사무소 및 지사 설립 필요서류
 - 본사 이사회 결의서
 - 지사 설립
 - 지사장 임명
 - 지사장 위임장
 - 지사장 권한 지정
 - 본사 정관
 - 지사 법적 주소(Lawful address)
 - 신청서
- 일반 법인체(예: 유한책임회사) 설립 필요서류
 - 정관
 - 외국인 여권
 - 외국인의 business background 관련 서류 (예시:한국 사업자등록증 등)
 - 법인체 법적 주소
 - 신청서
- 법인 설립절차



6. 투자입지여건

아제르바이잔은 10개의 경제지구(Economic Region)와 본토와 떨어져 있는 비지인 Nakhchivan 자치구, 아르메니아와 분쟁 중으로 현재 아르메니아에서 점령하고 있는 Nagorno-Karabakh 공화국(아제르바이잔의 Yukhari Garabag 경제지구의 주요구역과 Kelbajar-Lachin 경제지구 모든 구역을 포함) 등 크게 12개 지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상기 12지역은 또한 59개의 구역 (District-rayon)과 11개의 도시(sahar)로 나뉘어져 있다.

참고로 Nagorno-Karabakh 공화국의 경우 구소련시절 아제르바이잔 영토였으나 1990년 초반부터 아르메니아의 군이 주둔해 있다. 1991년 독립선언 이후 3년간 분쟁이 있었고 1994년에 휴전 협상을 맺었으나 아직까지도 양국이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1) Absheron(압셰론)

수도 바쿠(Baku: 인구 210만 명)를 포함하고 있는 이 지역은 Absheron 반도에 위치하고 있다. Absheron은 아제르바이잔 국내총생산(GDP)에 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는 지역이다. 주로 낮은 산과 평지로 이뤄져 있으며 기후는 아열대 사막 기후다.

이 지역에는 돌, 석회, 시멘트, 석영(quartz), 벽돌 및 모래가 많고, Samur강과 Kura강으로 연결되어 있는 인공수로가 있어 수자원이 풍부한 편이다.

석유 가스, 석유화학, 철금속과 비철금속의 야금, 에너지, 경공업, 식품가공, 건설, 교통, 서비스 등의 산업이 발달하고 있으며 유리와 폴리머(polymer)도 생산되고 있다.

농업은 도시 근교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채소, 와인, 화초, 아열대 과일 등이 생산되고 있으며 올리브, 사프란, 피스타치오 등의 재배도 가능하다.

도로, 철도, 항만 및 공항 등의 인프라가 아제르바이잔에서 가장 잘 구축이 잘 되어있으며 북부에는 해양 리조트도 있다.

2) Aran(아란)

아제르바이잔 민족의 첫 정착지인 Aran지역은 아제르바이잔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이 지역의 반은 해수면 아래에 있는 평지이며 기후는 건조한 아열대 기후다.

주요 자원은 원유, 천연가스, 요오드 브롬광석과 건설자재 등이며 풍부한 태양광과 Kura와 Araz강의 수자원, 토지 등의 지형적 장점이 있다. 남서쪽은 제조업도 있다. 화학, 기계, 식품, 건설자재 산업이 지역경제를 주도하고 있다.

Mingechevir, Salyan과 Neftchala 구역(rayon)에는 화학공장이 있으며 Ali-Bayramli, Salyan 구역에는 중공업 공장이 있다. Mingechevie은 면직물, Yevlakh 구역은 모직물 가공, Ali-Bayramli는 가죽, Gazi Mammad의 카펫 등이 주요 산업이다.

Aran은 교통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다. 수도 바쿠와 조지아, 이란과 터키를 연결하는 주요 도로 및 철도가 Aran 지역을 통과함. Yevlakh와 수도 Baku는 비행노선이 연결되어 있다.

3) Daglig Shirvan(달리그 쉬르반)

이 지역은 아제르바이잔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평지와 산악지대로 이루어져 있다. 평지의 기후는 건조하고 더운 편인 반면 산악지대의 기후는 추운 편이다. 돌, 모래, 찰흙, 암설(detritus) 등의 다양한 건설자재가 매장되어 있으며 산악지대에도 일부 광물이 매장되어 있다. 온천이 많이 있다. 목축, 포도재배 및 포도주 제조가 주요산업이며 전통적인 카펫 생산도 하고 있다.

4) Ganja-Gazakh(간자-카자크)

이 지역은 온화한 기후와 비교적 아름다운 경치로 휴양 및 관광산업의 중심지로 개발하기에 적합하다. 해발 1,500m 지대에 웅장한 Goy-Gol 리조트와 Hajikend 리조트가 있으며 Naftalan의 기름은 병을 치유하는 효과가 있다.

아제르바이잔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아제르바이잔 총 GDP의 12~13%를 생산하고 있다. 소규모 제조업과 가공업이 발달했다. 야금 산업은 Ganja와 Dashkesan 구역에서 주로 발달되어 있으며 자동차, 농업, 기계, 서비스 및 통신도 주요 산업이다.

아제르바이잔 총 농업의 13~14%, 감자의 80~85%, 포도의 28%, 목축업의 15%가 Ganja-Gazakh 경제지역에서 생산 또는 재배되고 있다.

5) Guba-Khachmaz(구바-카치마즈)

아제르바이잔의 북동쪽에 있으며 북쪽으로는 러시아, 동쪽으로는 카스피해를 끼고 있음. 농업과 농수산물가공업이 주요 산업이며 채소 및 과일 통조림, 어류 가공, 카펫 생산이 이 지역의 특산품임. 곡물 재배업과 유제품 생산업은 Khachmaz와 Devechi 구역에서 발달되어 있다.

원유, 혈암유(shale oil), 천연가스, 모래, 자갈과 점토가 매장되어 있으며 수자원도 풍부한 편이다. 이 지역은 요양원과 온천지도 대거 갖추고 있어 관광업이 잠재력이 있다.

6) Lankaran(랜코란)

남동부에 있는 Lankaran 경제지구의 경우 서쪽과 남쪽에는 이란을, 동쪽에는 카스피해안을 접하고 있다. 크게 저지대 Lankaran과 산악지대 Talish 지역으로 분류되고 7개의 다양한 기후대가 혼재해 있다.

벽돌, 모래, 석회 등 다양한 건설자재가 매장되어 있고 숲과 비옥한 토지가 이 지역의 주된 자원으로 이 지역의 26%가 숲으로 덮여 있다.

농업 가공이 지역의 주요 산업이며 비옥한 토지와 습한 아열대 기후, 풍부한 노동력은 농업을 육성하기에 적합한 조건이다. 이 지역에서의 채소, 차, 감귤, 과일재배 및 포도주 제조업은 유망 산업 분야다.

Baku-Astara 고속도로와 철도가 주된 교통로다. 향후 North-South Transport Initiative 정책의 일환으로 이란-아제르바이잔-러시아-북유럽을 연결하는 교통망이 정비될 경우 무역 중심지로의 부상이 기대된다. 생태관광, 요식업 등의 여가산업 발전 잠재력이 있다. 인접한 이란은 인구 7,000만의 국가로 2,000만명에 달하는 아제르바이잔이 살고 있어 관광산업의 발전 잠재력이 있다.

7) Nakhchivan(나이체반)

옛 실크로드가 통과했던 지역으로 Nakhchivan 자치지역은 아제르바이잔 본토와 떨어져 있는 비지(ENCLAVE)로서 터키, 이란, 아르메니아에 둘러싸인 자치공화국이다. 건조한 대륙성 기후로 국토의 32%는 해발 600~1,000m 고도에 위치하고 있으며 48%는 해발 2,000m가 넘는 곳에 자리잡고 있다.

올리브덴과 암염, 백운암, 대리석 등의 다양한 건설자재가 매장되어 있으며 200개 이상의 온천이 흩어져 있다. 농산품의 가공 및 제조가 주요 산업이며 양 목축도 유명하다. 주변에 있는 여행지와 화산지대로 인하여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

이란과 터키와는 도로 및 Nakhchivan 공항을 통해 물류교환이 이루어진다.

8) Sheki-Zagatala(셰키-자카탈라)

코카서스 산맥 남부, 아제르바이잔의 북부에 있는 지역이다. 아제르바이잔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러시아 및 조지아와 접경하고 있다.

주요 자원은 구리, 황화철강, 납, 아연이며 이 지역의 주요 산업은 농업과 목축으로 담배, 누에고치, 과일, 곡물류 등이 재배되고 있다.

9) Yukhari Garabag 및 Kelbajar-Lachin (Nagorno-Karabakh 공화국)

Lachin, Kelbajar, Gubadli, Khojavend, Khojali, Shusha, Jebrayil과 Khankendi 구역은 현재 아르메니아군의 완전지배를 받고 있으며 Agdam과 Fuzuli 구역은 부분적인 지배를 받고 있다. 두 지역의 주요 산업은 모두 농업으로 포도, 곡물, 과일, 담배 등이 주요 산물이다. 금광이 있으며 수은, 대리석, 석재, 코펠, 펄라이트 등도 매장되어 있다.

7. 노무관리

1) 노동시장 개황

아제르바이잔 비즈니스의 주요 강점 중의 하나는 풍부한 저임 노동인력이다. 2011년 노동인구는 대략 440만 명으로 전문교육 또는 상위교육을 받은 노동인구는 약 120만 명 정도이다. 2012년 기준 1인당 월평균 급여는 전년 대비 4.3% 증가한 363마나트(약 462달러)다.

노동인력 현황(2007~2011)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근로자수(천명)	4,162	4,215	4,271	4,329	4,375
실업자수(천명)	281	262	260	258	250

자료: 아제르바이잔 국가통계위원회(2012.3)

2) 노동제도

노동관계는 노동법(The Labor Code, 1999년)과 하급법이 규율하고 있다. 개인은 직업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며, 외국법인도 중개기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고용할 수 있다.

고용계약은 노동관계법 보다 노동조건을 불리하게 정할 수 없다. 수습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 기간에 일방이 3일 전 통보로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노동기록부는 피고용자가 고용주에게 제출하고, 고용주는 피고용자의 노동기록을 기입해야 하나 강제이주자, 난민, 외국인, 무국적자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기록은 피고용자의 국가연금 지급기준이 된다.

3) 현지 직원 채용

2011년 12월에 책정된 근로자 최저임금은 월 93.50 마나트로 미화 약 \$120이다.

정규노동시간은 주 40시간(특정 노동집단은 그 이하)이다. 국방, 공공안전, 공공시설 공급, 기타 긴급 상황이 아닌 경우 초과근무를 강제할 수 없으며, 노동법이 정한 기준 이상으로 초과근무를 지속할 수 없다. 초과근무수당은 초과근무, 휴무일(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 등) 근무 시 지급하여야 한다. 초과근무수당은 통상임금률의 2배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법정휴무일은 18일(17일은 법정공휴일, 1일은 법정애도일)이며, 유급휴가일수는 최소 21일이다. 병가는 최초 14일 이내는 고용주가, 초과하면 고용주가 아닌 국가사회 보장기금이 지급한다. 출산휴가는 출산 전 70일, 출산 후 56일이며, 고용주가 아닌 국가사회보장기금이 지급한다.

4) 퇴직제도

고용관계는 고용계약으로 성립되며, 종료기간을 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계절적 특성을 갖는 노동, 한시적 프로젝트, 당사자간 합의 등의 사유로 예외적으로 고용계약 기간을 한정할 수 있다. 기간이 정해진 고용계약의 경우, 계약만료 7일 전까지 계약종료 통보가 없는 경우 자동으로 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고용계약의 경우, 고용주는 법으로 정해진 경우에만 고용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법정사유: 근로자의 총체적 노동의무 위반, 잉여인력 발생, 근로자의 자질이 임무수행에 부적격한 경우, 노동조건의 변화 등).

고용주는 고용계약 종료를 사전에 통지할(통상 만료전 2개월) 의무가 있으나, 근로자의 총체적 노동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근로자는 1개월전에 통지하여 고용계약을 종료할 수 있으며, 고용주가 고용계약을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일정기간의 '일과 중 구직활동'을 허용하여야 한다. 특정 근로자(임산부, 3세 미만 아동 부양 여성)와의 고용계약 종료는 허용되지 않는다.

잉여인력 발생, 작업장 폐쇄, 기업청산 등의 사유로 고용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고용인은 최대 3개월 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5) 법정 사회보험

일반적으로 법인은 매월 근로자 급여의 22%를 법정사회보험으로 납부해야 하며, 근로자 급여 총액의 3%를 사회보험으로 원천 징수해 함께 국가에 납부해야 한다. 고용주가 사회보험으로 부담해야 할 금액은 상업, 운송, 건설 분야의 경우 국가 전체 평균임금의 최소 70%, 기타 업종은 40% 이상이다.

아제르바이잔에는 법정의료보험도 있으나 적용세율 및 절차가 아직 정하여 지지 않았다.

8. 조세제도

1) 조세제도 구분

조세제도는 일반조세제도(Statutory Tax Regime)와 석유관련 조세제도(Oil Consortia Tax)로 이원화되어 있다. 석유관련 조세제도는 생산물분배협정(Production Sharing Agreement: PSA)과 진출국정부협정(Host Government Agreement: HGA)에 따라 진출한 외국법인에 적용된다.

2) 일반조세

아제르바이잔은 2001년에 현행 조세법을 채택하였다. 일반 조세는 생산물분배협정(PSA)이나 진출국정부협정(HGA)을 제외한 모든 법인에 적용된다. 대표사무소나 지점은 업무 시작일로부터 한달 이내에 조세등록을 해야 하고, 업무종단 전 한달 이내에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종류	세율	납세대상자	비고
법인세 (Profit Tax)	20%	모든 법인	과세기준: 발생이윤
사회보장세 (Social Contributions)	25% (이중 3%는 종업원 소득에서 원천징수)	고용주	과세기준: 종업원소득
부가세(VAT)	18%	부가세 납부 등록 (대상)자	과세기준: 제품 또는 서비스 가격
소비세 (Excise Tax)	0.08%~12.5%	술, 담배, 휘발유 제조자 또는 수입자, 자동차 라이트 수입업자, 레저/스포츠 요트 수입업자	자동차의 경우, 엔진 용량에 따라 차등 부과
재산세 (Property Tax)	최대 1%	자산(건물, 차량 등) 소유자	과세기준: 연평균가치
토지세 (Land Tax)	100sq m 당 AZN0.1~AZN10 사이	토지 소유자 또는 토지 사용자	면적, 입지, 지목에 따라 차등 부과
광업세 (Mining Tax)	3%~26%	광물자원 채굴자	금속: 3%, 가스: 20%, 원유: 26%
단일종합세 (Simplified System Tax)	4%(바쿠지역) 2%(기타지역)	분기 매출이 약 \$47,000 미만인 법인과 분기 매출이 약 \$28,000미만인 개인	과세기준: 매출액, 부가세, 법인세, 재산세 면세
자동차세 (Road Tax)	년간 AZN2,800	외국 및 현지법인	자동차 엔진 용량, 차축의 수, 적재중량, 연식에 따라 차등 부과

자료: Doing business in Azerbaijan

3) 석유관련 조세

생산물분배협정(PSA), 진출국정부협정(Host Government Agreement)등은 아제르바이잔 내 유전개발 또는 송유관 건설에 참여하는 외국기업에 유리한 조세체제를 제공하고 있다.

PSA에서 법인세는 원천징수방식을 따라 지급 가능하다. 원천징수 세금 납부로 아제르바이잔 내 모든 납세(피고용자 및 사회보장 관련 납세는 제외) 및 보고의무가 완료되며, 원천징수 세율은 PSA에 따라 5~8% 수준이다. 또한 PSA 관련 활동에 대해서는 0%의 부가가치세가 적용된다.

9.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1) 외환법

- 외환거래 관련 기본법은 외환법(Law on currency Regulation, 1994)이며, 중앙은행(National Bank of Azerbaijan:NBA)이 외환정책 결정권과 외환통제와 관련된 규정 제정권을 갖고 있음
- 외환법은 해외부채 상환, 로열티, 프랜차이즈 수수료 지급 등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외환 거래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음
- 거주자는 아제르바이잔에 지속적인 거주지를 갖는 개인 및 아제르바이잔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함
- 외국 법인의 아제르바이잔 내 지정 및 대표사무소는 비거주자임
- 거주자에 대한 외환규제가 훨씬 엄격함

2) 외환거래

- 수취인이 중앙은행으로부터 외환거래 특별허가를 얻은 경우를 제외한 아제르바이잔 모든 외환지급은 자국통화인 마나트로 결제함
- 외환의 매매 교환은 인가된 은행 및 금융기관에서만 가능
- 거주자는 국내은행에 외환계좌를 자유롭게 개설할 수 있으나, 국외은행에 외환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중앙은행의 승인이 필요
- 경상거래
 - 180일 이내 지급조건의 수출입계약 거래대금 송금
 - 180일 이내 지급조건의 수출입거래의 금융제공을 위한 송금
 - 배당금, 이자, 기타 소득의 송금
 - 유산, 임금, 연금, 수당 등 비상업적 송금
- 자본거래
 - 해외직접투자
 - 해외증권 매입
 - 해외 고정자산 소유권 및 권리 취득
 - 180일 이상 지급조건의 수출입거래
 - 180일 이상의 해외예금
 - 기타 비경상거래

3) 특별 송금제도

- 송금액 1만 달러 초과: 동 금액이 현금으로 아제르바이잔에 유입되었음을 입증하는 통관 증명서, 개인의 입국비자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송금이 가능함
- 송금액 5만 달러 초과: 외환을 취득한 해외은행으로부터 은행증명서, 현금영수증 등의 자금출처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송금이 가능함

4) 수입대금 선급

- 수입대금은 상품이 국내에 수입되는 시점에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나, 상품이 180일 이내에 인도된다는 조건 하에 25,000달러까지 수입대금의 선급 가능함
- 25,000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을 선급할 경우 중앙은행의 허가가 필요하며, 중앙은행의 허가기준인 '건전한 거래' 여부는 중앙은행이 일방적으로 판단함

5) 과실송금

- 외국인의 투자는 아제르바이잔 국민과 정부에게 해를 입히거나 자연재해, 전염병, 사고 및 국가 비상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수용 및 징발되지 아니 함
- 하지만 만일 상기 사항이 발생할 경우 국가는 외국인투자자에게 보상하여야 하며, 수용 혹은 징발 당시의 투자금이 보상되는데 외화로 지급되고 해외송금이 보장됨
- 조세를 납부한 후 이익 송금은 보장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는 정부 혹은 공공 기관의 불법 행위로 입게 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음

V. Business 참고정보

1. 시장특성

아제르바이잔은 중동의 시장특성과 CIS 지역의 시장특성이 공존하는 지역이다.

주요 시장특성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아제르바이잔 내에 제조업 기반이 거의 없어 석유/에너지 자원을 제외한 모든 물자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에서 제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초보단계이며 생산량이 미미하다.

둘째, 자국 내 생산되는 공산품이 없기 때문에 공산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셋째, 품질보다 가격이 우선시되는 가격시장이라는 점이다. 상위 1%가 국부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빈부격차가 극심한 국가로서 일반 국민들의 소득수준은 후발개도국 수준이며, 구매력이 낮고 저가품을 선호한다. 반면 소수의 부유층은 품질이 우수한 고가제품을 선호한다.

넷째, 이란 등 인근 중동국가와는 달리 기도시간 등 종교적 이유로 비즈니스가 중단된다거나 하는 경우가 드물다.

2. 물가정보

(1 US\$ = 0.785AZM / 2012년 8월 17일 기준)

구분	항목	가격(AZM)
식품류	쌀 1kg	1.7
	계란 10개	1.4
	쇠고기 1kg	9.0
	돼지고기 1kg	8.5
	우유 1L	1.1
	식용유 1L	2.2
	생수 1L	0.5
	맥주 (EFES 500ml)	1.5
	담배 1갑 (말보로 라이트)	3.0
	햄버거 (맥도날드 빅맥)	2.5
	김치찌개 1인분	8.0
의료비	의료보험료 (4인가족, 초과제외 Full Cover, 1년)	의료보험 제도 미시행
	병원진료비 (의료보험 X, 몸살감기 내과초진)	20.0
	병원진료비 (의료보험 O, 몸살감기 내과초진)	-
차량관련	중형승용차 (2000cc 신차, 오토, 에어컨포함 기본사양)	52,000
	무연휘발유 1L	0.55
	자동차 등록비	300
	자동차보험료의무(2000cc신차,운전경력10년,대인/대물커버, 1년)	1,100
교통비	공항 1시간 주차료	1.0
	지하철 기본요금 (1구간)	0.15
	시내버스 기본요금	0.2
	택시 기본요금	5.0
통신	시내전화 요금 (3분)	무료
	국제전화 요금 (4분, 독일로 걸 때)	10.0
	휴대전화 요금 (월표준 1분)	0.7
	인터넷 월사용료 (ADSL 기준)	20.0
주택	아파트 월 임차료 (150sm, semi-furnished, 시내, 중상급)	1,600
교육	외국인학교 초등 1년 수업료 (중상급)	US\$23,500
	외국인학교 중등 1년 수업료 (중상급)	US\$23,500
	외국인학교 고등 1년 수업료 (중상급)	US\$23,500
숙박	특급호텔(5성급) 1박 정상요금 (싱글)	280
	중급호텔(3성급) 1박 정상요금 (싱글)	100
임금/노무	대졸 초임 (중상급 대졸, 영어구사, 외국인회사 초임 월급여)	US\$1,000
	생산직 초임 (학력무관 월급여 초임)	250
	매니저급 급여 (인사담당 5년 경력 과장급 월급여)	US\$1,500
	주당 법정근무시간	40
	출산휴가일수	90일
	연간 국경일수	16일
	주5일 근무 여부	주5일
기타	드라이크리닝 (정장 1벌 기준)	11.0

3. 바이어 발굴

가. 인쇄 매체를 통한 발굴

코트라 무역자료실에서 아제르바이잔의 기업체 정보 및 관련 자료를 볼 수 있다.

- Kompass Azerbaijan 2012 등

나. 온라인을 통한 발굴

아제르바이잔에서 작성된 아제르바이잔 기업체 정보 제공 웹사이트는 없지만, Kompass 웹사이트인 <http://kompass.com>에서 아제르바이잔 기업에 대해 알아볼 수 있다(유료 사이트). 국가별, 업종·업체별로 검색할 수 있으나 여타국가와는 달리 각 기업에 대한 상세 정보는 파악할 수는 없다.

다. 각종 협회를 통한 바이어 발굴

협회 명칭	연락처
아제르바이잔 기업가 협회 <Azerbaijan (Youth) Young Entrepreneurs Association>	전화 : (994 12) 497 09-47 팩스 : (994 12) 497-09-51 주소 : Ajerbaijan, Baki, AZ1001 Baki Nizami kuc 16
아제르바이잔 리스 협회 <Azerbaijan Leasing Companies Association (ALCA)>	전화 : (994 12) 449-91-61, 449-85-95 팩스 : (994 12) 449-85-65 주소 : 9 S. Rustam str., 2th floor, AZ1014, Baku, Azerbaijan
아제르바이잔 광고 협회 <Azerbaijan Advertisers Union>	전화 : (994 12) 494-90-32/495-69-97 팩스 : (994 12) 497-40-00 주소 : 24, Bakikhanov str, AZ 1022, Baku, Azerbaijan
은행협회 <Association of Banks>	전화 : (994 12) 597-61-69 (994 12) 497-15-15 주소 : AZ 1000, 36, A.Topchubashev str. 1-st floor, Baku, Azerbaijan
아제르바이잔 호텔협회 <Azerbaijan Hotels Association>	전화 : (994 12) 433-04-77 (994 12) 596-12-55 팩스 : (994 12) 433-04-77 주소 : S. Mehdiyev kuc. 93 Baki AZ1000 Azerbaijan

컨설팅업체협회 <Association of Consilting Companies>	전화 : (994 12) 492-20-42 팩스 : (994 12) 492-20-42 주소 : N. Refibeyli kuc. 4/52 BakiAzerbaijan
--------------------------------------------------	--------------------------------------------------------------------------------------------------

라. 전시회를 통한 바이어 발굴

아제르바이잔에서 개최되는 전시회는 <http://www.iteca.az/>에서 파악 가능하다. 아제르바이잔 시장개척의 가장 유용한 수단이나 전시회 참가비가 선진국 수준으로 높은 편이며, 내륙국가로서 전시물품 운송에 최소 2개월이 소요되고 운송비용도 많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한국기업의 아제르바이잔 전시회 참여는 미미

4. 상관습 및 거래 시 유의사항

아제르바이잔의 상거래 관행 및 거래 시 유의사항을 살펴보면,

첫째 Agent 문화를 들 수 있다. 작은 것 하나까지 지인의 소개를 통해 구입하는 문화가 일반적이다. 또한 중간 소개자가 일부의 이익을 챙기는 것 역시 통상적으로 받아들여진다. 현지 진출 시 좋은 파트너를 만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로 대접문화를 들 수 있다. 외부에서 온 손님을 극진하게 대접하지만, 자신들이 유럽에 속해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 사업미팅 시 항상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다가갈 필요가 있다.

셋째, 독점체제 및 부정부패를 들 수 있다. 경제구조가 독점체제로 운영되고 있고, 공무원의 경직이 일반적인 정경일치 사회이다. 공공부문 입찰에 있어서는 Under Table Money 없이는 불가능할 정도다.

넷째, 협의절차의 복잡성을 들 수 있다. 의사결정권의 중앙집권화로 실무자 단계에서 결정되는 일은 드물다. 비교적 사소한 의사결정도 최고 결정권자의 승인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가격이나 대금지불 등 금전적인 사항은 실무자가 결정하지 못한다. 협상이 차질을 빚을 때 끈기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필수적이다.

5. 무역, 투자진출 시 애로사항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구소련에서 독립한 이래 규제 제도를 개선해 왔지만 여전히 투명성 결여되고, 부정부패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투명치 못한 정책, 자유경쟁을 촉진하는 효과적인 법규 부재가 외국인 투자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아제르바이잔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대부분의 기업인들이 관료주의, 부정부패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6. 진출 성공, 실패 사례

□ SK C&C

○ 프로젝트 개요

- 프로젝트 명 : 바쿠시 ITS(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 구축
- 프로젝트 기간 : 2008. 8월 ~ 2012. 9월
- 수주 금액 : 미화 1.4억 달러

○ 성공요인

- 당초 프로젝트 발주 시 업무범위가 '설계'만으로 대부분의 관련 국내기업은 사업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입찰에 참가하지 않았으나 SK C&C는 향후 가능성을 보고 사업 참가를 결정
- SK C&C는 아제르바이잔 정부의 느린 의사결정과 미온적인 반응(3개월 이상 아무런 답변이 없는 등)에도 불구하고 까다로운 자료 요구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잦은 현지 출장을 시행하는 등 현지 정부와 신뢰관계를 쌓았던 점, 그리고 SK C&C의 우수한 기술력이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함. 한편, SK C&C사의 러시아어 구사직원이 현지 정부와 직접적으로 속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점도 유효하게 작용
- 프로젝트 수행범위는 당초 '설계'에서 '시스템 구축'까지로 확대되어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됨

7. 이주정착 가이드

아제르바이잔은 오일 머니 유입으로 인한 경제발전으로 생활환경이 꾸준히 향상되고 있다.

무선 통신망은 인구기준 아제르바이잔 전체의 90%까지 보급되어 있으며 바쿠시에서는 ADSL 수준의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자동차 도로망은 포장 상태 등 아직은 미흡한 수준이나 바쿠와 주요 도시를 잇는 도로 건설이 한창 진행 중에 있어 향후 점차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하수 처리시스템은 현재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수도물은 석회성분이 많아 그냥 마실 수 없으며 생수를 구입하여야 한다. 또 수도의 단수나 전기의 정전도 자주 발생하는 편이다.

바쿠 시내 아파트 및 사무실 임차비는 서유럽 어느 도시 못지 않을 정도로 높다. 사무실은 2008년 금융위기 이전까지는 공급이 충분치 않아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었고 외국기업이 임차할만한 사무실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았으나 최근 들어 오피스 건물이 많이 공급되고 외국기업의 진출도 부진하여 최근 사무실 임차 문제는 대체로 해소되었다.

아제르바이잔 치안상태는 비교적 좋은 편이다. 경찰력이 강력하여 인근 CIS 국가 대비 범죄율은 낮은 편이며 거리를 보행할 수 있다. 물론 어두운 밤거리를 다니는 것은 피해야 하며 많은 사람이 보는 자리에서 큰돈을 꺼내 보이는 행동은 삼가야 한다. 복장과 관련, 남자들은 더운 여름 철에도 항상 긴바지를 입고 다니며 여자들도 인근 이슬람권 국가와는 달리 자유롭다.

젊은 세대는 영어를 많이 배우고 있으나 아제르바이잔어나 러시아어를 모르면 생활하기가 불편하다.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의료환경이라 할 수 있다. 아제르바이잔 의료 환경은 매우 열악한 편이며 특히 수도인 바쿠 이외 지역에서는 의료서비스가 거의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바쿠의 경우에도 경미한 수술이 가능한 정도며 복잡한 수술은 어렵다.

대중교통은 한국에 비해 저렴하나 시설이 열악하고 노선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 이용이 불편하다. 특히 지하철은 구소련 시절에 건설되어 매우 노후화되었으며 문을 닫지 않고 운행되는 경우도 있는 등 외국인들이 이용하기에는 위험하다. 버스 정류소가 많지 않기 때문에 버스 정류소가 아닌 곳에서도 손을 내밀어 버스를 타거나 내리는 것이 때에 따라 가능하다. 대중교통은 최근 도입된 보라색 미터 택시를 제외하면 에어컨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 특히 여름에 이용하기에는 불편한 점이 많다.

외국인 학교는 영국계(TISA) 및 미국계(BIS) 두 곳이 있다. 이 외에도 영어로 수업을 하는 외국인 학교가 더 있으나 수준이 낮기 때문에 외국 주재원들은 대부분 TISA나 BIS를 이용한다.

아제르바이잔에는 여가생활을 위한 시설이 부족하다. 골프장은 아직까지 없으며 실내 골프연습장이 1개소 있다. 테니스장은 여러 곳 있으며 비교적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다. 영화관은 바쿠 시내에 9곳이 있으며, 볼링장은 시내에 3-4곳 있다. 구소련의 영향으로 오페라, 발레 공연은 비교적 활성화되어 있다.

8. 출장가이드

가. 기후

아제르바이잔은 온대성기후에서부터 건조 아열대기후 산지툰드라 기후까지 다양한 기후가 나타난다. 평야는 건조 온대기후, 남동부의 렌카란 저지대는 습윤한 아열대기후, 이란 인접 지역은 온대대륙성 기후, 해발 2,000m 이상의 산지는 한랭한 기후지대이다.

연평균기온이 평야는 0~15℃로 다양하고, 고산지대는 0℃ 이하이다. 평야지대의 1월 평균기온은 0~3℃, 중간 산지는 영하 3℃~영하 6℃, 고산지대는 영하 10℃ 이하임. 평야지대의 7월 평균기온은 25~27℃이며 여름철에는 최고 45℃까지도 상승한다.

강수량은 지역적 차이가 큼. 강수량이 적은 지역은 압세론 반도의 남부해안, 쉬르반 남동부, 고부스탄 남동부 등지로 연강수량이 200mm 이하이다. 쿠라 저지의 동부, 나히체반 지방의 아라크스강 유역도 200~300mm에 불과함. 소카프카스 산맥과 대카프카스 산맥의 북동사면은 600~800mm, 대카프카스 산맥의 남사면은 1,000~1,300mm이나 되며, 2,000 mm를 넘는 곳도 있음. 렌카란 평야 남부와 탈리쉬 산맥의 산록은 1,100~ 1,700mm임. 렌카란 지역에서는 강수의 대부분이 겨울에 집중되며, 산간지역이나 구릉지에서는 4~9월 사이에 집중된다.

나. 시차/근무시간

아제르바이잔 시간은 'GMT+4시간' 이며 한국과는 하절기(서머타임 실시)에 4시간, 동절기엔 5시간의 시차가 있다.

근무시간은 일반적으로 주 40시간이며 토, 일요일을 제외한 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상점이나 슈퍼마켓 등은 제외). 국방 또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과 근무를 강요할 수 없으며, 초과근무시간 또한 노동법에 규정된 시간을 넘어서는 안된다. 시간 외 근무 시 초과수당은 정규 근무시간 임금의 최소 2배를 지급해야 한다.

다. 출입국/비자

- 아제르바이잔 입국을 원하는 외국인은 비자를 받아야 함. 비자는 아제르바이잔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받을 수 있다(사전에 인터넷으로 신청 필요).
 - 비자 신청서
 - 여권용 사진 및 여권 사본
 - 항공권 사본
 - 초청장
- 단수비자의 유효기간은 3일에서 3개월이다. 복수비자는 아제르바이잔 출·입국 횟수에 상관 없이 최대 일년까지 유효하며 비자 유효기간 동안 비자를 사용하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
- 아제르바이잔을 경유하여 다른 국가로 가는 외국인들도 단수 혹은 복수 경유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이 비자를 지참한 외국인은 아제르바이잔에서 5일까지 머물 수 있다.

- 아제르바이잔에서 비자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비자만료일 전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비자신청서
 - 여권 원본 또는 재입국 허가증
 - 수수료 영수증
 - 초청장
- 아제르바이잔에서 한달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인 거주지 등록을 해야 한다.
- 비자 비용은 아래 표와 같다.

비자 비용

(단위: 달러)

비자 종류	비자 비용
단수 비자 (3일~3개월 이내)	50
더블 비자	80
복수 비자 (1년 이내)	250
학생 비자	20
경유 비자	20
더블 경유 비자	40
비자 연장 (24시간 이내)	10
비자 연장 (48시간 이내)	20
비자 연장 (72시간 이내)	30
비자 연장 (3일~1달 이내)	40

- 비즈니스 목적으로 아제르바이잔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노동 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이 허가증은 노동부와 사회보호부(Social Protection)에서 발행한다. 노동 허가서는 1년 동안 유효하다. 이 허가증의 유효기간을 매년 연장할 수 있지만, 4회까지만 연장 가능함. 다음의 경우에는 노동 허가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 영주권자, 기업가, 국제협약을 통해 세워진 기업 경영자, 외교 사절단, 국제기관 직원, 사업가(3개월 이내 거주하는), 정부에 등록된 선교사들, 대중 매체 직원, 선원, 스포츠맨, 예술가, 대학 연구자와 교수
- 노동부와 사회보호부에서 노동 허가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신청서
 - 허가증 사본
 - 추천서 사본

라. 교통/통신

1) 교통

□ 육상교통

바쿠시의 교통수단은 지하철, 버스, 택시 세 가지가 있음. 지하철은 설비가 매우 열악하나 요금은 15케픽(= 0.15마나트)으로 저렴하며 2개의 노선이 있다. 2마나트 짜리 지하철카드 구매 후 계속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음. 버스 요금은 20케픽이며 현금을 내고 이용한다. 지하철과 버스 운행 시간은 대략 06:00AM~12:00PM 이다. 택시는 한국에서처럼 미터기를 장착하고 있지 않아 매번 이용할 때마다 운전사와 가격을 흥정해야 한다. 최근 도입된 보라색 택시는 미터기가 장착되어 있으며 흥정이 필요 없기 때문에 외국인들에게 선호되고 있다. 바쿠 시내 이동 시 택시운전기사는 보통 3~5마나트를 요구하나 외국인들에게는 5~10마나트를 요구한다. 공항에서 택시를 이용하여 바쿠 시내로 들어올 경우, 보통 미화 30달러를 요구한다.

아제르바이잔의 철로는 두 개의 주요 노선이 있는데 그 중 한 노선은 카스피해를 따라 러시아에서 이란으로 나 있으며, 다른 노선은 바쿠에서 조지아로 연결되어 있다. 철도를 이용하여 바쿠에서 조지아까지 갈 경우, 약 14~17시간이 소요되며 비용은 객차 등급에 따라 35~50마나트가 소요된다. 에어컨이 없는 등 설비가 매우 낙후되어 있다. 선로도 노후화되어 속도가 매우 느린 편이다.

□ 해상교통

카스피해는 육지로 둘러싸인 내해여서 바쿠는 국제 항구로 발전하지 못했지만 1990년 중반 이후 성장해 오고 있다. 바쿠에서 카스피해를 통해 투르크메니스탄의 투르크멘바시와 이란의 반다르안잘리, 반다르 나우샤 등으로 갈 수 있다

□ 항공교통

항공운송은 1931년부터 시작되었으며, 바쿠, 간자, 나히체반 등에 국제공항이 위치하고 있다. 바쿠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루지야,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CIS국가와 터키, 이란 등 주변 인접국가의 주요 도시로 가는 항공편이 개설되어 있다. 국내 주요 항공로는 바쿠~나히체반 항로이다.

2) 통신

□ 유무선 통신

아제르바이잔의 일반 전화 보급률은 매우 낮다. 2008년 말 기준 약 139만 명(보급률 16%)에서 2011년 말 기준 약 158만 명(보급률 17%) 정도만 유선 전화를 보유하고 있다. 수도인 바쿠 시내에서도 공중전화는 찾아볼 수 없다. 반면, 무선통신의 경우, 1994년 아날로그식 이동통신 서비스가 처음으로 도입된 이후 현재 GSM 방식이 보편적으로 자리잡았으며 아제르셀(Azercel), 박셀(Bakcell), 아제르폰(이상 GSM), 카텔(CDMA) 등 4개의 이동통신 회사가 경쟁하고 있다. 서비스 가입자 수는 2011년 말 기준 약 970만 명(보급률 104%)이며 서비스 지역은 전국의 약 90%(인구기준)에 이른다.

□ 인터넷

아제르바이잔 인터넷 이용자수는 약 350만 명 정도로 추정되며, 일반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인터넷카페에서도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 일반 가정에서는 주로 전화접속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나 ADSL 수준의 인터넷 이용도 가능하다. 고속 인터넷 요금은 1GB에 약 미화 30달러 정도로 비싼 편이라 일부만 사용하고 있다. 휴대전화에 비해 보급이 미흡한 편이다.

마. 공휴일

공휴일은 아래 표와 같음/ 만약 공휴일이 토요일 혹은 일요일과 겹치게 되면 바로 다음 근무 일이 자동적으로 휴무일이 된다. 선거일 또한 휴무하며, 만일 공휴일에 일을 하게 되면 더 높은 보수(최소 2 배)를 지급해야 한다.

노동법에 규정된 유급휴가일수는 최소 연간 21 일이다.

공휴일 (2012 년)

1. 1~4	신년
1. 20	추모일
3. 8	여성의 날
매년 바뀜 3.20~24	Novruz Bayram(조로아스터교 신년)
5. 9	승전기념일
5. 28	공화국의 날
6. 15	국가 구원의 날
6. 26	국군의 날
매년 바뀜 8.20~8.21 (2012 년)	Ramazan Bayram(금식제) :금식제(라마단)가 끝난 후
매년 바뀜 10.25~26(2012 년)	Gurban Bayram(희생제)
11. 12	제헌절
11. 17	국가재건일
12. 31	아제르바이잔 연대의 날

바. 유용한 연락처

아제르바이잔 정부부처

기관명	주소	전화(994-12)
경제개발부	40, U.Hajibayov St., Baku AZ1000	493-88-67
문화관광부	40, U.Hajibayov St., Baku AZ1000	493-30-02
내무부	7, Husu Hajiyev St., Baku, AZ1005	590-92-22
외무부	4, Sh.Gurbanov St., Baku, AZ1009	596-90-00
국세부	16, Landau St., Baku, AZ1073	403-89-70
재무부	83, Samed Vurgun St., Baku, AZ1022	493-81-03
국가안보부	2, Parliament Avenue, Baku, AZ1006	493-76-22
교통부	1054, Tbilisi Ave., Baku, AZ1122	430-99-41
농림부	40, U.Hajibayov St., Baku AZ1000	498-64-49

기관명	주 소	전화(994-12)
국방부	3, Parliament Ave., Baku, AZ1073	439-31-08
비상사태부	57, Tbilisi Ave., Baku	430-09-21
환경자원부	100A, Bahram Agayev St., Baku, AZ1073	538-04-81
정보통신부	33, Zafifa Aliyera str., Baku, AZ1000	498-58-38
산업에너지부	40, U.Hajibayov St., Baku AZ1000	598-16-75
법무부	1, Inshaatchylar Avenue, Baku	430-01-16
교육부	49, Khatai Avenue, Baku, AZ1008	496-06-47
노동부	85, Salatin Asgerova St., Baku, AZ1009	434-60-18
관세청	2, Inshaatchylar Ave., Baku, AZ1073	438-80-80
국가통계위원회	Inshaatchilar Ave, Baku, AZ1136	538-64-98
중앙은행	19 Bul-Bul Av. AZ1000	493-50-58
석유공사(SOCAR)	73, Neftchiler Av.	521-03-32
석유재단(SOFAZ)	20, Bul-Bul Ave., Baku, AZ1014	498-77-53
상공회의소	73 Fatali Khan Khoisky St.	495-68-36
수출투자진흥공사(AZPROMO)	11, Hasan Abdullayev street Baku, AZ 1001	598-01-47

기타

구 분	기관명	번호(994-12)
대한민국 공공기관	주 아제르바이잔 한국대사관	596-7901~03
	KOTRA 바쿠 무역관	436-7560~61
공증사무소	Notary's Office #1	498-45-14
통번역 서비스	Vnesh Expert Service Consulting Company	492-9277, www.vneshexpertservice.com
주요 호텔	Park Hyatt Baku	490-1234, www.baku.hyatt.com
	Grand Hotel Europe Baku	490-7090, www.europehotel-baku.com
	Radisson SAS	498-2402
	Park Inn Azerbaijan	490-6000, www.baku.rezidorpark inn.com
자동차 렌트	AVIS	497-5455 www.avis.az
	HERTZ	497-8757
긴급전화	소방서	-101: 4910734
	경찰서	-102: 4934265: 4958817
	응급차	-103

9. 주요 전시회 개최일정

아제르바이잔에서 개최되는 전시회는 <http://www.iteca.az/>에서 파악 가능하다

10. 유관기관 웹사이트

아제르바이잔 주요 유관기관 웹사이트/ 이메일은 아래와 같다.

유관기관 명	웹사이트 및 이메일
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	Web-site: www.economy.gov.az E-mail: office@economy.gov.az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Web-site: www.culture.az E-mail: mugam@culture.gov.az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Web-site: www.mia.gov.az Email: info@mia.gov.az
Ministry of Foreign Affairs Consular Department	Web-site: www.mfa.gov.az E-mail: secretariat@mfa.gov.az
Ministry of Taxes	Web-site: www.taxes.gov.az E-mail: info@taxes.gov.az
Ministry of Youth and Sport	Web-site: www.mys.gov.az E-mail: myst@myst.gov.az
Ministry of Health	Web-site: www.health.gov.az E-mail: mednet@mednet.az
Ministry of Finance	Web-site: www.maliyye.gov.az E-mail: office@minfin-az.com
Ministry of National Security	Web-site: www.mns.gov.az E-mail: cpr@mns.gov.az
Ministry of Transport	Web-site: www.mintrans.az E-mail: office@mintrans.az
Ministry of Agriculture	Web-site: www.agro.gov.az E-mail: aqry@azerin.com
Ministry of Defence Industry	Web-site: www.mdi.gov.az E-mail:
Ministry of Ecology and Natural Resources	Web-site: www.eco.gov.az E-mail: mineco@box.az
Ministry of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Technologies	Web-site: www.mincom.gov.az E-mail: info@mincom.gov.az
Ministry of Industry and Energy	Web-site: www.mie.gov.az E-mail: mfe@azdata.net
Ministry of Education	Web-site: www.edu.gov.az E-mail: office@min.edu.az
Ministry of Justice Department on State Registration of Legal Entities	Web-site: www.justice.gov.az E-mail: contact@justice.gov.az
Ministry of Labour and Social Protection of Population	Web-site: www.mlsp.gov.az E-mail: mlsp@gov.az
State Customs Committee	Web-site: www.az-customs.net E-mail: Externall@az-cusoms.net